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는 글을 배울 때 어문 규정을 조항별로 직접 학습해 사용하기보다는 출판물이나 간판, 광고문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인쇄물이나 대중매체의 언어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중 신문 언어는 일상 언어생활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신문이라는 매체가 지닌 신뢰의 정도만큼 신문에서 쓰이는 언어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신문에 실리는 기사나 논평 등은 내용을 기술할 때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할 때, 어느 분야보다 엄밀해야 할 것이다.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실제 신문 언어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신문 언어에는 사회 현실을 바로 반영한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공간의 제한 때문에 줄임말도 꽤 등장하며, 때로 어문 규범을 벗어난 표기나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이 드러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신문 언어의 문제를 검토하고 지적한 자료들은 있었으나, 신문 기사 전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부분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이 자료들을 직접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신문 언어의 표현 방식과 특성을 고려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신입 기자를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문 기사의 표기·표현 지침서를 마련하는 데 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거나 어문 규정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문 언어에 나타난 오류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신문을 제작하거나 신입 기자를 교육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신문에서 자주 나타내는 잘못된 표기나 표현,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찾고 그에 대한 바른 표기나 표현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문 언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문 언어에 대한 기존의 분석 자

료를 검토하였다.

일차적으로 신문 언어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한국 신문의 문체'(1997)와 '신문 문장 분석'(2003)뿐만 아니라 신문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발행한 잡지와 단행본, 자료집 등도 검토하였다. 이 밖에 '새국어생활'(계간), '말과글'(계간), '신문과 방송'(월간) 등에는 신문 언어에 대한 짧은 글들과 소논문 형태의 글들도 검토하였다.

기존의 자료를 검토하여 신문 언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를 유형별(띄어쓰기, 맞춤법(외래어 표기법 포함), 낱말, 표현)로 나누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예문으로 사용할 신문 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다음 실제 기사에서 나타난 오류를 제시하고 그 오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뿐만 아니라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것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물은 실제 신문 기사를 본문에 제시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낱말', '표현'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하여 바른 표현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했다.

II. 신문기사의 분석

1. 신문 기사의 종류

신문 기사는 크게 스트레이트 기사와 상자형 기사로 나뉜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기사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사실을 담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틀이 정해져 있어서 내용이 딱딱하고 문체는 건조한 편이다. 반면에 상자 기사는 해설, 주장, 르포 등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체도 다양하고 쓰이는 어휘도 다양한 편이다. 이처럼 기사의 유형에 따라 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가능한 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두 유형을 골고루 섞어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근의 신문 기사 내용을 예문으로 제시하였는데, 오래된 기사의 내용은 신선하지 않고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예문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예로 제시한 신문 기사의 종류와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 종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합계
스트레이트	3	7	2	1	2	0	15
해설	3	0	4	3	1	1	12
사설/칼럼	3	3	1	1	0	0	8
인터뷰	0	1	1	1	0	0	3
르포/스케치	0	2	1	1	0	0	4
합계	9	13	9	7	3	1	42

2. 신문 기사의 예

신문 기사는 스트레이트, 해설, 사설/칼럼, 인터뷰, 르포/스케치의 순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신문 기사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다.

1) 스트레이트

<한국, 국제항공기구 이사국 4회 연속 진출>

우리나라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 4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에서 열린 이사국 선거에서 4위로 이사국에 올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당선된 뒤 4회 연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됐다.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이들 이사국들은 국제 항공운송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들이 불편과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사국은 3개 그룹으로 구성돼 의견 교환을 나눈다. 일본·중국·미국 등이 참여한 1그룹(주요 항공)은 11개국, 멕시코·인도·싱가포르 등이 속한 2그룹은 12개국(시설 기여), 우리나라가 속한 3그룹(지역 대표)은 13개국이다.

161개국이 각각 13표를 던진 3그룹 선거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 146표를 얻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우간다와 쿠바가 143표로 공동 2위, 우리나라가 141표를 얻어 모로코와 공동 4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는 127표를 얻어 5위로 이사국에 올랐고, 2004년에는 9위, 2001년에는 12위로 이사회에 입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사국 선거를 하루 앞두고 몬트리올 시내의 델타 호텔에서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리셉션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항공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 항공전문가 무상교육과 ICAO 문서 전자화 사업지원 등 이사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이번 이사국에 4회 연속 진출함으로써 위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 해설

<먹을거리 범죄 형량 높여 엄벌... 양형기준안 *내년3월부터 시행>

남모 씨(48)는 2005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며 ‘나카마’라고 불리는 중간유통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다되거나 지난, 이른바 ‘반품(返品)’ 식품을 싼 가격에 사들였다. 남 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유통기한에 별 관심이 없는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이 ‘반품’ 식품을 팔기 시작했다. 남 씨가 경기도 일대 소재 물류창고에서 사들인 폐기용 식품을 보관해놓은

경기 남양주시의 창고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쳤을 때에는 곰팡이로 뒤범벅이 된 초콜릿, 대장균이 들어있는 배즙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남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겉포장에 있는 날짜를 아세트산으로 지운 다음 팔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품이나 폐기 대상인줄 알면서도 이를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이나 식품 선택에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중·노년의 남자들을 상대로 속여 파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매매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인데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1414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0.6%)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건·식품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해 앞으로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기준안에 따르면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해 적발되면 ‘징역 3년 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징역 5~8년’을 선고한다. 특히 어린이, 유아용 식품인 경우 형량을 가중해 처벌하게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3) 사실

<먹으란 말인가 먹지 말란 말인가>

낙지 주산지와 유통업체가 전전궁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중에 유통중인 낙지, 문어 등의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머리와 내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부 지역에서 잡힌 꽃게의 내장에도 다량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연체류를 요리할 때는 먹물과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지침까지 내놨다. 그런데 식품 관련 주무 관청인 식약청의 입장은 다르다. 낙지의 머리 부분은 전체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

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머리만 따로 떼어 먹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헛갈린다. 인터넷에서도 이 기사가 뜨자 대체 먹으면 말이나, 먹지 말란 말이나며 항의성 리플이 수 없이 달렸다. 서울시 권고대로라면 연체류의 먹물과 내장 부위는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고, 식약청 의견대로라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물 관련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 과학은 엄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만큼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논란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인다.

4) 인터뷰

<연극 ‘햄릿’ 들고 한국 찾은 독일 연출가 오스터마이어>

“연출가는 세상을 관찰한 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기반한 내 작품이 실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연출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대나 음악 같은 데 신경 쓰기보다 배우들과 얘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일찌감치 ‘차세대 대표주자’로 꼽혀온 독일의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42)가 연극 ‘햄릿’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오스터마이어에 따르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와 드라마다. 그에 따르면 무대나 음악은 개인적 취향이라고 보면 된다. 그는 이제 연극 연출에 있어 대가로 불린다.

— 왜 ‘햄릿’인가?

“고전 재해석은 힘든 작업이다. 언어, 장소,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다. ‘햄릿’은 일생에 한 번은 해야 할 작업이었다. 그래서 다른 연출을 오랜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드는 연출이 없었다. 연출에 일종의 허영심이 투사돼 있었다. ‘햄릿’은 암흑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떳떳한 1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러다 보니 연출가가 자신을 그 인물에 투영하더라.”

— 햄릿을 제외한 나머지 배역은 한 배우가 두 역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돈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닌 듯 싶은데 의도가 있나?

“내 극단에 25명의 배우가 있다. 다들 배역 따내길 원하는 지라 한 배우가 두 가지 역을 한다고 말하긴 쉽지 않다. 더구나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에 배우들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이기도 하다. 미처 버

린 햄릿이 마구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을 참조해 두 역을 한 배우에게 맡겼다.”

— 당신의 작품을 볼 관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너무 크게 기대하진 말라는 거다.(웃음) 연극이란 결국 엔터테인먼트니까.”

5) 르포

<평생학습축제 성공 '자원봉사자의 힘'>

11일 오후 4시경 대구 동구 검사동 동촌유원지. 문화·교육 홍보체험관, 국제현대미술전이 열리는 주전시관 등 600여개 부스에는 수천여 명의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들 사이로 핑크색 티셔츠를 입은 행사 요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행사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이다. 대학생부터 노인들까지 360여 명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들의 손발이 됐다.

대구 동구에서 열린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11일 막을 내렸다. 동구청에 따르면 8~11일까지 축제기간 전국에서 17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행복의 반올림 희망의 어울림 2010 대구 동구'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20개국의 국제학습도시, 76개 평생학습도시, 16개 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 전국 51개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 같은 성공에는 지역민들의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했다. 행사장 안내, 통역, 환경정리 등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지역을 찾은 내·외국인들에게 대구를 홍보하는 일은 물론 원활한 축제 진행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축제 기간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던 프로그램인 '뗏목 금호강 탐사', '동행 섣다리(부교)' 등에도 봉사자들의 손길이 빛났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이번 봉사가 배움의 기회였다고 했다. 대구대 무역학과 4학년인 권재구 씨(27)는 “취업을 앞두고 중국어 통역 봉사를 위해 참여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색다른 체험이었고 오히려 많은 것은 배웠다”고 말했다. 국제도시 참여로 전 세계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류연희 씨(29·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팔, 코스타리카 등 평소 접할 수 없는 나라 문화를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통역관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활짝 웃었다.

Ⅲ. 신문 기사에 나타난 오류 양상

신문 기사에 나타난 오류 양상은 크게 어문 규정과 표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어문 규정에 대한 오류는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오류가 있고, 표현에 대한 오류는 낱말 표현과 문장 표현에 대한 오류가 있다. 오류에 대한 바른 표현을 제시할 때 낱말 표현은 낱말로, 문장 표현은 표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띄어쓰기

신문 기사에서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기 중 띄어쓰기는 신문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부러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면과 상관없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잘못된 띄어쓰기 예를 검토해 보니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경우와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가 있다.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경우는 한 단어인데 띄어 쓴 경우와 조사, 어미, 접사를 띄어 쓴 경우가 있다.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는 한 단어가 아닌데 붙여 쓴 경우이다. 한 단어가 아닌데 붙여 쓴 경우로는 명사와 명사를 붙여 쓰거나, 대명사와 형용사를 붙여 쓰거나, 관형사와 명사를 붙여 쓰거나, 부사를 붙여 쓰거나, 용언을 붙여 쓴 경우와 의존명사를 붙여 쓴 경우가 있다.

띄어쓰기의 오류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띄어쓰기	오류 유형	개수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경우	한 단어	27
	조사	6
	어미	5
	접사	6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	한 단어 아닌 경우	24
	의존명사	18
합계		86

실제 띄어쓰기를 잘못된 예와 그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경우

(1) 한 단어는 붙여 써야 함

- ① 그러나 그 동안 줄곧 기부금을 늘려 왔던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보다 성적이 저조했다.
→ ‘그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② 영화 이끼가 지난 10여 년간 지겹게 따라 붙던 ‘마이너 감성의 작가’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게 한 것이다.
→ ‘따라 붙던’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③ 정전 사태는 8000여만 명을 칠곡 같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주 원인은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과부하로 밝혀진 바 있다.
→ ‘주원인’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④ 이번 주에 열리는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향후 북한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불러일으키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2) 조사는 그 앞 말에 붙여 써야 함

- ① 김 원장의 발언은 외교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방위적인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뿐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②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1억 5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 ‘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③ 귀동냥 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는 얘기를 주고받는 이들도 있었다.
→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 어미는 붙여 써야 함

- ① 김 원장은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특채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자기 사람 심기 수단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 ‘-는지’는 연결어미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② 한편 북한의 후계구도 변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는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 어미로 붙여 쓴다.
- ③ 한여름 불볕더위가 끝나자마자 비가 쏟아져 배추가 녹아버렸고 그나마 수확한 배추도 예년보다 크기가 작고 속이 비어 상품 가치가 낮아졌다.
→ ‘-자마자’는 연결어미이다.

(4) 접사는 단어를 이루는 요소이므로 붙여 써야 함

- 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육수와 닭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에 중독되거나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값에 한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찾는 사람들이 많다.
→ ‘한-’은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붙여 쓴다. ‘한겨울’, ‘한가을’, ‘한봄’, ‘한낮’, ‘한가운데’, ‘한밤중’, ‘한복판’ 등이 있다.
- ② 소방방재청은 15일 오후 2시에 민방공 대피 훈련을 20분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간’이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여 ‘동안’의 뜻을 가질 때는 접미사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후계구도 및 당 노선, 기타 정책 상 큰 변화가 발표될 경우 이에 대한 당의 지지와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상(上)’은 ‘지구 상’처럼 물체의 위나 위쪽을 뜻하는 말로 쓰일 때는 명사로 보아 띄어 쓰고, ‘관계상, 미관상, 통신상’ 등처럼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할 때는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쓴다.
- ④ 우리 제조업은 고부가가치·고기술 산업으로 재편성되도록 강요 당했다.
→ ‘당하다’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놓여 그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 주고 ‘피동’의 뜻을 더할 때는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쓴다.

2)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

(1) 한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함

- ① 조너선 바이런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양 내비게이터’를 썼다.
→ ‘이같은’은 한 단어가 아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고, ‘같은’은 ‘다르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반면 ‘이같이’는 붙여 쓴다. 여기서 ‘같이’는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다. ‘얼음장같이’, ‘눈같이’, ‘소같이’ 등
- ② 사람이 하는 일이나 감정이 개입된다. 상대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안되면 갈등이 쌓인다.
→ ‘안되면’의 ‘안’은 ‘아니’의 준말로 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부사이므로 두 개의 단어이다. 그러므로 ‘안 되면’으로 띄어 써야 한다.

(2) 의존명사는 띄어 써야 함

- ①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L&C는 지난달 29일 5000억원을 투자해
→ ‘5000억원’의 ‘원’은 화폐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5000억 원’으로 띄어 써야 한다.
- ② 과학은 엄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만큼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 ‘만큼’은 체언 뒤에 놓이면 조사로 보아 붙여 쓰고, 용언 뒤에 놓이면 의존명사로 보아 띄어 쓴다. ‘생명인’은 관형어로서 용언 기능을 하므로 그 뒤에 놓인 ‘만큼’은 의존명사로 보아 띄어 쓴다.

2. 맞춤법

맞춤법 오류에는 우리말 표기나 외래어 표기를 잘못된 것들이 포함된다. 맞춤법 오류를 나타낸 것은 42개다.

맞춤법 오류	갯수
우리말	32
외래어	12
합계	44

1) 우리말 표기 오류

우리말 표기 오류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말한다.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는 실제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어문 규정에 맞추어 적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단어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반복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잘못된 표기 예와 그 수정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현대중공업은 프랑스 알사스 주의 유리·건축자재 업체인 생고뱅 그룹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2012년까지 국내에 박막태양전지 공장을 설립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 ‘설립키로’는 ‘설립하기로’ 혹은 ‘설립기로’로 써야 한다. ‘-하다’가 준말 형태로 활용할 때 어근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아주 줄어든 형태로 쓴다. 예) 생각건대, 못지않다, 익숙지, 깨끗지, 녹록지 등.
- ② 2015년까지 연간 400MW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생산 에너지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에너지량’은 ‘에너지양’으로 써야 한다. 고유어와 외래어 명사 뒤에는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량’을 쓰지 않고 ‘양’을 쓴다.
- ③ 마른고추 같은 것 2큰술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어 만든다.
→ ‘같은’은 ‘간’으로 써야 한다. ‘같다’는 ‘간/갈아/가니’ 등으로 활용된다.
- ④ “책을 쓴 저자와 만나면 궁금했던 게 금새 확 풀린다.”
→ ‘금새’는 ‘금시에’가 줄어서 된 말로 ‘금세’로 써야 한다.

2) 외래어 표기 오류

외래어 표기 오류는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를 말한다.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를 표기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잘못 사용된 것들을 관용적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표기 예와 그 수정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즈텍문명 속 '기억의 형해만 남은 물의 신전' 앞이기도 하다.
→ '아즈텍'은 '아스테카'가 바른 표기이다.
- ② 2003년 데뷔한 그룹 '에픽하이'의 리더 타블로는 스스로 스탠포드대를 조기 졸업했다고 밝혀 한때 화제가 됐다.
→ '스탠포드대'는 '스탠퍼드대'가 바른 표기이다.
- ③ 원작의 팬들은 영화가 미스터리 드릴러를 산골 마을의 나쁜 이장 이야기로 망쳐놓았다고 분개한다.
→ '미스터리 드릴러'는 '미스터리 스릴러'가 바른 표기이다.

3. 낱말

낱말 오류에는 굳이 외래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외래어를 노출한 경우, 어려운 한자어,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등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이 잘못된 경우에 그 외래어를 올바른 외래어로 표기하였지만 순화어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맞춤법에서 다루지 않고 낱말에서 다루었다. 낱말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낱말 오류 유형	개수
한자어를 고유어 또는 쉬운 표현으로	14
외래어/외국어를 순화어로	33
약어	5
잘못 사용된 낱말	23
합계	75

(1) 잘못 사용된 낱말

- ① 5월의 책 '안전과 공유도원도'에 대한 독후감은 다음달 11~23일 접수 가능하다. 접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 '접수'는 무엇을 받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제출'이라고 해야 어울린다. 그러므로 '독후감 제출은'으로 고쳐 써야 한다.

(2) 한자어를 고유어로

- ①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쉬운 우리말을 쓰는 게 좋다. 그러므로 '증원하는'을 '늘리는'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증원'은 앞말 '인원'과 뜻이 일부 중복된다.

(3) 외래어/외국어를 순화어로 사용

- ①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었던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부금이 올해들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기부 마인드 확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글로벌’은 ‘세계’ 또는 ‘세계적’으로, ‘마인드’는 ‘의식’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4. 표현

문장 오류는 문장이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조사나 어미가 잘못 쓰인 경우, 피동이나 사동 표현이 잘못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으로는 번역 투 문체, 피동형 문장을 들 수 있다.

문장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문장 오류 유형	개수
정확한 문장	111
자연스러운 문장	67
간결한 문장	47
의미의 명료성	45
합계	270

유형별로 그 예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확한 문장

(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 된 경우

- ① 저자는 수많은 전문가를 인용해 다양한 생각을 소개했다.
- ‘전문가를 인용해’의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 ②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호와 몸짓은 그저 시늉에 불과했다.
-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은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으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의미가 되므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 ‘방만한 경영’과 호응하는 말을 넣는다.

(2) 조사나 어미를 잘못 쓴 경우

- ① 바이런은 서문에서 서로 연결돼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라고 밝혔다.
→ '소개한다'에서 '-라는'은 '라고 하는'이 줄어든 말이다.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낸다. '-다는'은 '다고 하는'이 줄어든 말이다. '다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소개한다는'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대변인은 부정선거와 관련 있는 10여 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10여 명의 책임'에서 '의'는 '에게'로 고쳐 써야 한다.

2) 자연스러운 문장

- ① 그러나 그동안 줄곧 기부금을 늘려 왔던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보다 성적이 저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로 돌아선 전자나 자동차 분야보다 철강 및 조선 경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 '못한 때문으로'의 '때문'은 앞말이 명사형일 때 서로 잘 어울린다. 따라서 '못한'을 명사형 '못했기(못하기)'로 바꾸어 '못했기 때문으로'으로 고쳐 써야 문장이 자연스럽다.
- ②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과다지정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FEZ)이 본격 재정비된다.
→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피동형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능동형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은 되도록 능동형으로 쓴다.
- ③ '일리아스'는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에 의해 써어진 이래 3000년 가까이 인류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는 3000년 가까이 인류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영어 번역 투인 '~에 의해'를 피하고,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고쳐 쓴다. '호메로스에 의해 써어진'보다 '호메로스가 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간결하다.

3) 간결한 문장

- ① 정부는 또 대북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위한 방안으로'를 '위해'로 쓰면 간결해진다.
- ②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파크 오피스텔 견본주택 앞.
→ '위치하고 있는'에서 '위치하다'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다'는 뜻이다. '있다'와 뜻이 겹친다. '있는'으로 쓰는 게 좋다.

4) 의미의 명료성

- ①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 ‘거의 희박하다’는 ‘희박하다’나 ‘거의 없다’로 쓰는 것이 의미가 명료하다. ‘거의’는 어느 한계점에 가까운 정도를 말할 때 쓰이므로 그 한계점을 뜻하는 말과 어울린다. 예컨대 ‘거의 없다’는 ‘0’이라는 한계점에 가깝다는 뜻이다. 반면 ‘적다’, ‘희박하다’ 등은 한계점을 뜻하지 않으므로 ‘거의’와 어울리지 못한다.
- ②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4회 연속 진출함으로써 위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 ‘판이하다’가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는 뜻이므로 ‘달라지다’와 의미가 겹친다. 겹치지 않게 고쳐 표현한다.

IV. 신문기사 작성 지침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는 신문사마다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지침이 있다. 이 편찬 지침은 공통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공통된 부분은 대부분 어문 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모든 신문사가 어문 규정을 따르는 대원칙을 지키고 있다. 몇몇 신문사의 지침과 신문 기사의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원칙 1. 표기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원칙 2. 표기는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 원칙 3.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원칙 4. 내용은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신문기사 작성 지침을 띄어쓰기, 맞춤법, 낱말, 표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띄어쓰기 규칙

신문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부러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 편집에서 지면 제한으로 붙여 쓴다고 하더라도 띄어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1) 띄어 쓸 것

(1)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갈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그가 떠난 지 오래다.

사과, 배 등은 과일이다.

(2) 관형사는 뒤 말과 띄어 쓴다.

새 집, 흰 옷, 갓은 고생

(3) 단위명사는 띄어 쓴다.

차 한 대, 집 한 채, 신발 한 켤레

(4)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하는 말은 띄어 쓴다.

열 내지 스물, 부국장 곁 부장, 국장 대 과장

(5) 보조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 내 힘으로 막아낸다.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일이 될 법하다. = 일이 될법하다.

2) 붙여 쓸 것

(1)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삼계탕보다

(2)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

있는 지를 → 있는지를, 미칠지(-르지)

(3) 접사는 어기에 붙여 쓴다.

한여름, 강요당했다, 30%가량

(4) 성과 이름(또는 호)은 붙여 쓴다.

김철수, 이윤곡, 이퇴계

(5) 성명 뒤에 붙는 호칭어나 직함은 띄어 쓴다.

이순신 장군, 홍길동 씨

(6)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만성 골수 백혈병 = 만성골수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 중거리탄도유도탄

(7) 그 앞말에 첩어 또는 첩어에 준하는 말은 붙여 쓴다.

차레차레, 하루하루, 곤드레만드레, 여기저기

2. 맞춤법

맞춤법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따라 적는다.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을 따른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현재 12개 언어와 한글 대조표 또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와

기타 언어에 적용되는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가 있다. 외래어 표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어는 한글 24 글자만으로 적는다.

(2)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일곱 자만 쓴다.

슈퍼마켓/슈퍼마켓/디스켓/디스켓, 워크쇼프(즉 디어나 트,즈,츠,크,교,ㅎ 따위는 받침으로 쓰지 않음)

(3) 파열음(p, t, k)표기에는 된소리 (ㅃ,ㄸ,ㅆ)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리/빠리, 생택쥐페리/쌍뽕쥐베리, 카레이스키/까레이스키, 후쿠오카/후꾸오까, 가스/까스, 버스/빠스

(4)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 짧은 모음과 유음(r, l) 비음(n, m)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이 밖의 어말과 자음 앞의 무성파열음은 ‘-’를 붙여 적는다.

갭(gap), 북(book), 캣(cat), 앵트(apt), 셋백(setback), 액트(act(aekt), 스탬프(stamp), 케이프(cape), 데스크(desk), 메이크(make), 애플(apple), 매트리스(matress)

(5) /f/는 ‘프’로 표기한다.

파일/화일, 패밀리/훼밀리, 페리/훼리

(6) /l/은 ‘르르’이며 중모음(아이, 아우, 에이, 오이, 오우, 아워 따위)은 음가를 살려 적되 /오우/는 오로만 적는다.

볼링/보울링, 조크/조우크, 보트/보우트

3. 낱말

신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독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관적인 판단을 담아 내용을 기술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이용해서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어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독자는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문에서 단어를 쓸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낮추는 뉘앙스가 내포된 말은 쓰지 않는다.

검둥이 → 흑인, 코쟁이 → 서양인, 터키탕 → 증기탕, 튀기 → 혼혈아

(2) 과격한 느낌을 주거나 끔찍한 것을 상상하게 하는 말은 쓰지 않는다.

목 잘리다 → 해고되다

시간을 죽이다 → 시간을 보내다

피 튀기다 → 치열하다

(3) 저속한 말은 쓰지 않는다.

(경제가) 죽(을) 쭈고 있다, 후지다, 놀고 있다, 물먹이다, 쪽팔리다, 열받치다, 이미지 구기다, 꺼병하다, 구닥다리, 대가리, 짜가, 싹쓸이 등

(4) 특정 직업을 낮추어 부르는 말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쓴다.

간호원 → 간호사, 광부 → 광원, 노가다 → 막일꾼, 탄파라 → 연예인, 수위 → 경비원, 우체부 → 우편집배원, 운전수 → 운전사, 청소부 → 환경미화원

(5)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다음과 같이 쓴다.

장애자·불구 → 장애인, 절름발이·신체장애자·지체장애자 → 지체장애인

귀머거리·청각장애자 → 청각장애인,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병어리·언어장애자 → 언어장애인, 소경·장님·시각장애자 → 시각장애인, 맹인

정신박약 → 정신지체

(6) 신체장애와 성차별을 빗댄 비유 표현은 가급적 삼간다.

꿀 먹은 병어리, 장님 문고리 잡듯, 절름발이 행정, 권력의 시녀

(7) 삭감, 삭제, 조정 등의 보도자료 문투 또는 행정용어를 쓰지 않는다.

삭감하는 → 줄이는, (삭제)됐으며 → 뺐으며, 빠졌으며, (하향조정)하다 → 낮추다

4. 표현

문장의 길이는 간결해야 하며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의 길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군더더기 표현을 넣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문장을 작성할 때 문장 성분들이 호응을 이루는지, 조사나 어미를 정확히 사용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정확한 문장

정확한 문장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어와 술어 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조사와 어미의 사용이 정확해야 한다.

- ① 이사국들은 회원국들이 불편과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된다. → ‘불편’과 연결되는 서술어가 없다. ‘불편’은 ‘겪다’와 어울린다. ‘불편을 겪거나 손실을 입지’로 고쳐야 한다.
- ② 대변인은 부정선거와 관련 있는 10여 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10여 명의 책임’에서 ‘의’는 ‘에게’로 고쳐 써야 한다.

2) 자연스러운 문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번역투의 문장이나 피동형의 문장을 지양한다. 다음은 번역투의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1) ~를 위한/위해

‘위하다’는 글에서 수식어를 길고 복잡하게 만든다. ‘명사+를 위해’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어 ‘-고자, -하려고, -하도록’으로 간략하게 고칠 수 있다.

- ① 26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필립스전자 → 인터뷰하려고
- ② 지원자들의 가능성 평가를 위해 기존보다 더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 ③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그룹 등 한국의 간판 기업들 역시 불황 속에서도 주력 상품 마케팅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을 공격적으로 펼 계획이다. → 이미지를 높이려는 활동

(2) 피동형 문장 지양

신문기사는 피동형 문장이 많다. 피동형은 특정 대상을 부각하거나 요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주로 쓴다. 그러나 능동형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은 되도록 능동형으로 쓰는 것이 좋다.

- ① 잼이 발라진 빵 → 잼을 바른 빵
- ② 니스가 칠해진 의자 → 니스를 칠한 의자
- ③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 진행한다
- ④ 이 상은 해마다 모국어 발전 보급과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진다 → 준다
- ⑤ 휴대전화 요금의 3%, GS주유소 L당 40원, 영화 2000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에 따르면 ~이다

이것은 기사양식에서 굳어진 형태로 쓰이지만, ‘~에 따르면 ~이다’ 형태의 문장은 ‘~는 ~라고 했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4.0~4.5% 수준이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 수준이라고 밝혔다
- ②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앞으로도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 원-달러 환율이 12개월 후 1050 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원화 가치가 ~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 간결한 문장

간결한 문장을 위해서는 쓸 데 없는 표현, 글을 늘어지게 만드는 표현을 과감하게 생략한다. 단문을 쓰고, 꾸미는 말을 길게 늘어놓거나 반복하지 않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1) ‘~에 대해/~에 대한, ~를 통해, ~중에’

이러한 것은 한 번만 쓰일 때는 문제 되지 않지만 여러 번 쓰이면 문장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린다.

- ① 재임 기간 중에 알았다 → 재임 기간에 알았다
- ② 다음 주 중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 다음 주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 ③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정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④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 ⑤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 ⑥ 다른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사실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 다른 문서와 비교해 사실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2) 행정·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면 문장이 간결해진다.

‘실시, 시행, 조치를 취하다’ 등이 서술어로 쓰일 때는, 대체로 의미가 없으므로 행정 용어를 그대로 따라 쓸 필요는 없다.

- ① 구간에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 구간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 ② 품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 최상의 제품만 생산 → 품질 기준에 따라 검사해 최상의 제품만 생산
- ③ 이미 한 차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 이미 한 차례 구조조정을 했다
- ④ 이 구간에 대해 확장공사를 시행할 경우 → 이 구간에 확장공사를 할 경우
- ⑤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격리하기로 했다

⑥ 검찰은 이미 지난달 말 천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 검찰은 이미 지난달 말 천 회장을 출국금지 했으며

(3) '-고 있는/-리 수 있는/대표적인 ~가운데 한 명이다'

이것들은 꼭 써야 할 때도 있지만, 이것들을 쓰면 대체로 문장이 늘어진다. '-고 있는'은 현재형 '-는'으로, '-리 수 있는'은 뒤에 따라오는 낱말에 따라 '-리/-는'으로, '대표적 ~가운데 한 명이다'는 '~가운데 한 명'을 빼고 쓴다.

-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적 구조 혁신 등 경영정상화 방안은 → 현재 진행되는 인적 구조 혁신 등 경영정상화 방안은
- ②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마무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③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원내 리더십'을 선택했다 →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강한 원내 리더십'을 선택했다
- ④ 명화의 위작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이 → 명화의 위작을 가려낼 영상분석 프로그램이
- ⑤ 삼성전자의 변화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 삼성전자의 변화는 대표적인 사례다
- ⑥ 대표적인 추상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 대표적인 추상화가로 꼽히는

V. 신문기사 분석의 실제

1. 스트레이트 기사

(1) 민방공 대피 훈련 강화된다

천안함 사태 계기 시·도 단위서 전국 단위로

21년 전 폐지된 화생방 훈련도 부활

전국 단위 화생방 대피 민방위 훈련이 ①21년만에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15일 오후 2시에 민방공 대피 훈련을 ②20분 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도 풍수해 재난 대비 훈련을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 훈련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③적이 화생방 공격 시 대피요령 등이 훈련 내용에 포함된다. 방재청은 정부중앙청사 지하 2층에 연막탄을 터뜨린 뒤 ④직원들이 대피하는 모의 훈련을 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적의 공습 상황과 함께 ⑤집중호우를 비롯, 태풍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한 주민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⑥이 날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일반인들은 민방위 대원의 유도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⑦하며,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도로 오른쪽에 ⑧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989년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 ⑨시간은 45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면서 전국 단위 화생방 대피 훈련은 중단됐다. 방재청 관계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화생방 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져 주민들이 ⑩조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훈련을 ⑪치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띄어쓰기>

① 21년만에 → 21년 만에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② 20분 간 → 20분간

‘간’이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가질 때는 접미사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쓴다.

⑥ 이 날 → 이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날을 가리키는 ‘이날’은 붙여 쓴다.

<맞춤법>

⑪ 치루기로 → 치르기로

‘값을 지불하다’, ‘일을 겪어 내다’ 등을 뜻하는 말은 ‘치루다’가 아닌 ‘치르다’로 적는다. 따라서 어미 활용도 ‘치르니/치르고/치러’ 등이 된다.

<낱말>

⑧ 정차한 뒤 → 차를 세운 뒤
쉬운 말로 바꾼다.

⑩ 조속히 → 빨리/즉시/신속히
쉬운 말로 바꾼다.

<표현>

③ 적이 → 적의

명사형 ‘화생방 공격’을 수식하도록 하려면 관형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명사가 여럿 나열되어 있으므로 ‘적이 화생방 공격을 해 왔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고 풀어 준다.

④ 직원들이 대피하는 →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앞말 ‘연막탄을 터뜨린’과 일치되게 타동사형으로 한다.

⑤ 집중호우를 비롯, 태풍 등 → 집중호우, 태풍 등
‘~와 함께 ~를 비롯’은 늘어지는 표현이다. 글의 뜻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⑦ 하며, → 한다. 또
문장이 길어서 읽어 내려가기가 불편하다. 두 문장으로 가르면 간결하다.

⑨ 시간은 → 시간이

다음처럼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옮겨 놓고 보면 조사 ‘이/가’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전국 단위 화생방 대피 훈련은 1989년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 ⑨시간이 45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면서 중단됐다.’

(2) 개성공단 체류인원 증원 검토기로

생산 활동에 지장 없도록 직원 유연성 확보

금강산 협력업체에도 대출 확대방안 마련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①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 ②재제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성

공단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류 인원을 유연성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북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③위한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④이같은 방침은 최근 통일부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⑤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 기업들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의 평균 체류 인원이 절반으로 ⑥줄어 생산 차질, 비용 증가 등을 호소해 왔다. 최근 개성공단은 공장 ⑦가동율이 ⑧30%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강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⑨의거, ⑩추가 대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개성 공단 생산 활동을 위한 설비의 경우 공장이 완공된 기업에 한해 ⑪북한으로의 반출을 허용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권고했다.

<띄어쓰기>

④ 이같은 → 이 같은

형용사 '같은'은 지시대명사 '이'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단, '이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⑧ 30% 가량 → 30%가량

'가량'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⑦ 가동율 → 가동률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그 이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는다.

<낱말>

① 증원하는 → 늘리는

쉬운 말로 바꾼다. 또 '증원'은 앞말 '인원'과 뜻이 일부 중복된다.

② 재제 → 제재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뜻을 가진 낱말은 '제재(制裁)'이다.

⑨ 의거 → 따라/근거하여

쉬운 말로 바꾼다.

<표현>

③ 위한 방안으로 → 위해

‘위한 방안으로’를 ‘위해’로 쓰면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

⑤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는 흔히 조사 ‘-에도’나 ‘-음에도’ 뒤에 온다. 반면 본문에 쓰인 어미 ‘-는데도’는 그 자체가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불구하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뒤 절과 호응된다.

⑥ 줄어 → 줄면서/줄어들자

‘줄어’는 ‘줄어서’ 또는 ‘줄었기 때문에’ 등의 뜻을 나타내므로 뒷말과 뜻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줄어’를 살리려면 ‘~평균 체류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로 바꾼다.

⑩ 추가 대출 지원 방안 → 대출을 더 늘려 주는 방안

명사가 나열되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장은 ‘정부는 금강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대출을 더 늘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로 할 수 있다.

⑪ 북한으로의 반출을 허용하도록 → 북한에 반출할 수 있도록

‘-에의/-로의’ 등의 표현은 풀어 쓰는 게 좋다.

(3) 김정일 위원장, 후진타오 주석 만난 듯

28일 창춘서 6자회담, 경협 등 논의

일부선 “회동 가능성 없다” 전망도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9일 하얼빈에 ①들려 김일성의 혁명유적지를 돌아봤다. 김 위원장 일행은 28일 밤 창춘 역을 출발해 곧바로 하얼빈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창춘의 한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②회동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두 정상이 ③6자회담 재개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④거의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북한 전문가는 “후 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창춘까지 갔다니, ⑤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얼빈에 머물면서 김일성 항일 혁명유적지를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3남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 지명을 앞두고 ‘김씨 왕조 성지순례’ 차원에서 하얼빈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얼빈은 김일성이 빨치산 운동

을 펼친 곳으로 ⑥생전에 공산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생각했던 곳이다.

하지만 ⑦그가 하얼빈에서 어떤 ⑧경로를 통해 귀국할 것인지에 ⑨대해 ⑩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맞춤법>

① 들러 → 들러

'들르다'가 원형이므로 '들러/들르고/들르니' 등으로 활용된다.

<낱말>

② 회동을 한 → 만난

쉬운 말로 바꾼다.

<표현>

③ 6자회담 재개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문제 → 6자회담 재개와 경제 협력 문제

앞뒤 말을 '와/과'로 연결할 때는 서로 대등하게 한다.

④ 거의 희박하다 → 희박하다/거의 없다

'거의'는 어느 한계점에 가까운 정도를 말할 때 쓰이므로 그 한계점을 뜻하는 말과 어울린다. 예컨대 '거의 없다'는 '0'이라는 한계점에 가깝다는 뜻이다. 반면 '적다', '희박하다' 등은 한계점을 뜻하지 않으므로 '거의'와 어울리지 못한다.

⑤ 도무지 → 도저히

'도저히'는 '믿을 수 없다'와 잘 호응되고, '도무지'는 '믿어지지 않는다'와 잘 호응된다.

⑥ 생전에 → 그가 생전에

주어 '그가(김일성이)'를 생략하면 부자연스럽다.

⑦ 그가 → 김정일 위원장이

대명사 '그'는 주로 직전에 언급된 인물을 가리키는데, 이 기사에서 직전에 언급된 인물은 '김일성'이다. 이런 혼선을 피하려면 이름을 직접 밝혀 준다.

⑧ 경로를 통해 → 경로로

간결하게 표현한다.

⑨ 것인지에 대해 → 것인지는

간결하게 표현한다.

⑩ 확인이 안 되고 있다 →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이 안 되다’보다는 ‘확인되지 않다’가 더 자연스럽다.

(4) 올 실적 좋은 기업들, 기부금도 후하게 내놔
주요 10개 사 기부액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상반기에만 934억 원 출연

지난해 ①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었던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부금이 ②올해들어 크게 ③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기부 ④마인드 확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기부금 상위 10위 안에 들었던 대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기부금 납부액은 총 24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대상 10개 사가 기부금으로 사용한 903억 원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올 상반기에만 934억 원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1억 ⑤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⑥SK텔레콤이 524억 원으로 ⑦두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냈고, 3위는 ⑧410억 원의 기부금을 낸 KT였다. 이어 ⑨SK에너지가 145억 원을 냈고, 포스코 122억 원, 현대자동차 112억 원, 현대중공업 105억 원, 한국전력 79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⑩그 동안 줄곧 기부금을 늘려 왔던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보다 성적이 저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로 돌아선 전자나 자동차 ⑪분야보다 철강 및 조선 경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⑫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대체로 하반기에 성금이 몰리는 점을 ⑬ 감안하면 상위 10개 사의 올해 기부금은 대략 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띄어쓰기>

② 올해들어 → 올해 들어

‘올해’는 명사, ‘들어’는 동사이다. 둘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지 못하므로 띄어 쓴다.

⑤ 원 보다 → 원보다

‘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⑦ 두 번째 → 두 번째

‘두’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로서 띄어 쓴다.

⑩ 그 동안 → 그동안

‘그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낱말>

① 글로벌 → 세계/세계적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④ 마인드 → 의식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표현>

③ 신장된 → 증가한/늘어난

‘신장’은 세력이나 권리 따위의 추상명사와 주로 어울린다. ‘기부금’과 어울리는 말은 ‘증가’이다.

⑥ SK텔레콤이 524억 원으로 두 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냈고 → SK텔레콤이 524억 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한 문장에 ‘(으)로’가 연이어 나와서 부자연스럽다.

⑧ 410억 원의 기부금을 낸 KT였다. → 410억 원을 낸 KT였다.

‘기부금’은 이 글의 핵심어로서 앞 문장에도 여러 번 나왔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생략하는 편이 낫다. 한편 이 절은 앞 절과 같은 형식이 되도록 ‘KT가’를 주어로 내세우면 더 자연스럽다. ‘KT가 410억 원을 내 3위를 차지했다.’

⑨ SK에너지가 145억 원을 냈고 → SK에너지 145억 원,

뒤에 나열된 말들과 형태를 같게 한다. 이 표현을 그대로 두고 뒤에 나오는 ‘등으로 집계됐다’를 ‘등을 냈다’로 할 수도 있다.

⑪ 분야보다 → 분야와 달리

‘보다’에 이어지는 뒷말로는 ‘더(덜) 어찌하다’가 적절하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⑫ 못한 때문으로 → 못했기 때문으로

‘때문’은 ‘-하기 때문이다’처럼 명사형 뒤에 와야 자연스럽다.

⑬ 감안하면 → 감안할 때

문장 앞머리에 ‘추세라면’이 있어 ‘~면’이 두 번 쓰였다. 이런 중복 표현은 어색한 느낌을 준다.

(5) 감사원, 공직 인사 관련 특별 감사 착수

외교부 채용비리 계기 다른 부처도 조사키로

김 감사원장 “특별채용이 단체장들의 자기 사람 심기로 악용돼”

감사원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 인사 전반에 ①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특채 등 모든 채용 분야가 대상이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②망라할 전망이어서 공직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 특별채용 등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곧 ③감사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특채 제도가 당초 ④목적 대로 ⑤제대로 공정하게 운용되고 ⑥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⑦체크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자기 사람 심기 수단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⑧외교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⑨지자체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방위적인 감사를 통해 ⑩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특채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암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면서 행정감사 확대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며 기본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⑪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 대신 고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시제도가 일제 ⑫잔재고 용어 자체도 ⑬권위주의적이 되었기 때문에 5급 공채로 이름만 바꾼 것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부처마다 제각각인 특채 제도를 행안부가 주관해서 채용박람회처럼 운용하면 비리 소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띄어쓰기>

- ④ 목적 대로 → 목적대로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⑥ 있는 지를 → 있는지를
‘니지’는 연결어미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 ⑧ 외교부 뿐만 아니라 → 외교부뿐만 아니라
‘뿐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낱말>

⑦ 체크할 것 → 살펴볼 것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표현>

① 대한 → 대해

관형어 '있는'과 '대한'이 연이어 나와서 부자연스럽다.

② 망라할 → 망라될

무정물인 '감사'가 주어이므로 피동형인 '망라될'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 또 '망라될'을 '두루 포함될'로 바꾸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③ 감사가 시작될 → 감사를 시작할

앞 절의 형식에 맞추어 타동사형으로 만들어야 자연스럽다.

⑤ 목적대로 제대로 → 목적대로

'목적대로'와 '제대로'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제대로'를 삭제한다.

⑨ 지자체에서도 → 지자체에도

뒷말의 '있다'와 호응되게 하려면 '~에서'가 아닌 '~에'를 써야 한다.

⑩ 확인하겠다는 → 이를 확인하겠다는

'확인하다'의 목적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⑪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 대신 고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 →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고 고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기보다는 고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

원문은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을 존속시키는 대신 고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히기 쉽다.

⑫ 잔재고 → 잔재이고

'잔재이다'를 '잔재다'로 줄이는 것처럼 '받침이 없는 명사에 '이다'가 붙을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생략 범위를 확대하여 '잔재이고'나 '잔재이며'까지 '잔재고' '잔재며'로 줄여 쓰면 어색하다.

⑬ 권위주의적이 되었기 → 권위주의적이기/권위주의적으로 변했기

'-적'은 '-적이다/-적으로/-적인' 등과 같이 그 단어를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로 기능하게 하지만 '-적이 아니다/-적이 되다'처럼 주어나 보어로 기능하게 하기는 어렵다.

(6) 책·미술·인문학으로 초대하는 곳

“①책을 쓴 저자와 만나면 궁금했던 게 ②금새 확 풀린다.”

강서구는 오는 30일 겸재정선기념관에서 ‘책 읽기와 함께하는 미술·인문학 강좌’를 연다. ③매월 이달의 책을 선정해 관련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해 문화와 미술·인문학적 정신을 익히고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리다.

4월에는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선정했다. 특강에는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이 나와 ‘법정 스님 저서를 통한 삶 만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④ 실시한다. 다음 달 28일에는 ‘안견과 몽유도원도’의 저자가 직접 나와 겸재 정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민들이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⑤늘이기 위해 독후감 공모도 하고 있다. 4월의 책 ‘아름다운 마무리’를 읽고 오는 29일까지 독후감을 겸재정선기념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5월의 책 ‘안견과 몽유도원도’에 대한 독후감은 다음달 11~23일 ⑥접수 가능하다. ⑦접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분량은 A4 용지 2장 이상 4장 이내, ⑧글자 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60%다. 매달 우수 ⑨독후감상 1명을 뽑아 문화상품권 10만원을 부상으로 주며, 토론에 활발히 참여한 주민에게는 다음 선정 도서를 ⑩증정할 예정이다.

⑪지난달에는 유홍준의 ‘화인열전’을 선정해 도서평론가인 송광택 시인이 강사로 나서 주민 100여 명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석우 겸재정선기념관장은 “책을 읽어도 배경이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책과 글쓴이를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인접 ⑫학문과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맞춤법>

② 금새 → 금세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서 된 말이다.

⑤ 늘이기 → 늘리기

수나 양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늘리다’, 본디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하는 것은 ‘늘이다’이다.

<낱말>

⑦ 접수는 → 독후감 제출은

‘접수’는 무엇을 받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제출’이라고 해야 어울린다.

⑩ 증정할 예정이다 → 전달한다/선물한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말로 표현한다.

<표현>

① 책을 쓴 저자 → 저자

‘저자’는 ‘책을 쓴 사람’이란 뜻이다. 따라서 ‘책을 쓴 저자’는 중복된 의미 표현이므로 ‘책을 쓴’을 빼는 게 명료하다.

③ 매월 이달의 책을 선정해 관련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해 문화와 미술·인문학적 정신을 익히고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리다 → 매월 이달의 책을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연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미술·인문학적 정신을 익히고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리다

‘… 책을 선정해 … 초청강연을 통해 …’로 이어지는 등 문장의 앞뒤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는다.

④ 실시한다 → 한다

가능하면 딱딱한 용어는 피한다. 여기서는 ‘한다’라고 해도 충분하다.

⑥ 접수 가능하다 → 접수한다

‘가능하다’는 말은 불필요해 보인다. ‘접수한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간결하다.

⑧ 글자 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60%다 →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60%다

‘글자 크기’, ‘줄 간격’ 뒤에 조사 ‘은’이 생략돼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조사 ‘은’을 넣어 준다.

⑨ 독후감상 1명을 뽑아 → 독후감 한 편을 선정해

‘독후감상 1명’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자연스럽게 고쳐 쓴다.

⑪ 지난달에는 유흥준의 ‘화인열전’을 선정해 도서 평론가인 송광택 시인이 강사로 나서 주민 100여 명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유흥준의 ‘화인열전’을 선정한 지난달에는 강사 송광택 시인과 주민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문장이 산만하고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다듬는다.

⑫ 학문과 → 학문과의

조사 ‘의’가 빠져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의’를 넣어야 뒤쪽과 매끄럽게 연결된다.

(7) 최악으로 치닫는 키르기스 민족 분규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오시에 이어 13일(현지시간) 인근 잘랄라바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과도정부는 정부 방침을 담은 ①리후렛을 만들어 뿌리고 있다. 러시아가 키르기스 내 자국 공군 기지에 공수 부대를 추가로 보내면서 미국은 사태를 ②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러시아가 병력을 추가로 보낼 이유는 없다”③고 입장을 밝혔다. ④이를 모를 리 없는 러시아가 여론을 러시아로 돌리기 위한 ‘제스처’로 의심받고 있다.

오시에서 지난 10일 ⑤첫 시작된 민족 분규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됐다. 잘랄라바드에 살고 있는 세르게이 김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총성이 계속 울리고 있다. 폭도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총을 ⑥줘어 주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내 ⑦곳곳에는 아우성치는 소리만이 사람들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폭도들은 경찰서를 장악하고 지역 군부대에서 장갑차와 무기류를 탈취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이날 오시와 인근 카라수, 아라반 지역에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예비군을 동원하고 특수부대원들을 급파했다. 또 정부군과 ⑧경찰에 대해 폭도를 사살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렸다. 사태 확산을 ⑨염두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로자 오투바예바 키르기스 과도정부 대통령은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세력들이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방해하려고 오시에서 이번 소요를 ⑩부추켰다고 비난했다. 오투바예바는 새 헌법 체제에서 ⑪대통령 출마와 역대 최다 득표를 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과도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곧 미국 정부에 자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법>

⑥ 줘어 주는 → 줘여 주는

남의 손에 쥐게 해 주는 것은 ‘쥐이다’이므로 ‘쥐여 주는’이 바른 표현이다.

※남이 음식을 먹게 도와줄 때 ‘먹여 준다’고 하지 ‘먹어 준다’고 하지 않는다.

⑩ 부추켰다고 → 부추겼다고

‘부추기다’가 올바른 말이다.

<낱말>

① 리후렛 → 리플릿 → 광고지

‘리후렛’의 바른 표기는 ‘리플릿’이다. 순화어 ‘광고지’로 쓴다.

② 면밀히 → 자세히

‘면밀히’는 쉬운 말 ‘자세히’를 쓴다.

<표현>

③ 고 입장을 밝혔다 → 고 밝혔다

‘입장’이란 말을 굳이 넣어야 할 상황이 아니므로 빼는 게 좋겠다.

④ 이를 모를 리 없는 러시아가 여론을 러시아로 돌리기 위한 ‘제스처’로 의심받고 있다 → 이를 모를 리 없는 러시아가 여론을 러시아로 돌리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목적어가 없어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장이 되고 말았다. 문장을 알맞게 고쳐 쓴다.

⑤ 첫 시작된 → 처음 시작된

‘첫’은 관형사로 동사를 꾸미지 못한다. 부사인 ‘처음’으로 고쳐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첫 가다’가 어색한 것처럼 ‘첫 방송하다’, ‘첫 출발하다’, ‘첫 승리하다’ 등이 모두 뒤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부자연스럽다. 뒤에 명사가 와야 자연스럽다. ‘첫 방송이다’, ‘첫 출발이다’, ‘첫 승리다’.

⑦ 곳곳에는 → 곳곳에서

‘곳곳에는’과 어우러지는 서술어가 ‘맞고 있다’여서 어색하다. ‘에는’을 ‘에서’로 고쳐 쓴다.

⑧ 경찰에 대해 → 경찰에

여기서 ‘대해’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빼는 게 좋겠다. ‘경찰에’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간결하다.

⑨ 염두하고 → 염두에 두고

‘염두’는 ‘마음속’이란 뜻이다. ‘염두하다’는 말은 없다. ‘염두에 두다’라고 표현한다.

⑩ 대통령 출마와 역대 최다 득표를 하는 → 대통령에 출마해 역대 최다 득표를 하는

‘대통령 출마’와 이어지는 서술어가 없어서 어색한 표현이 됐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듬는다.

(8) 영덕 36.1도... 더위야 ①물렀거라

남부지방에 이틀째 폭염이 이어졌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6.1도를 기록했다. ②이밖에 대구 35.2도, 포항 35.3도, 밀양 34.7도를 ③기록하는 등 남부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이날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를 ④비롯한 부산, 창원, 밀양 지역이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더위는 29일과 30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⑤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⑥밤 사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다. 열대야는 ⑦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이른다.

⑧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주의보가 많았다. 예년보다 ⑨긴 발생 기간과 빈도도 늘었다. 외국에서도 기상이변이 ⑩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브라질과 인접 과라과이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지구촌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정전 사태는 8000여만 명을 ⑪칠흙 같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⑫주 원인은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력발전소의 과부하로 밝혀진 바 있다.

기상청 ⑬관계자는 “온난한 남서기류의 유입과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당분간 폭염이 빈번하겠다”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띄어쓰기>

③ 이밖에 → 이 밖에

‘이’와 ‘밖’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⑥ ⑦ 밤 사이 → 밤사이

‘밤사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⑧ 올 여름 → 올여름

‘올여름’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⑫ 주 원인은 → 주원인은

‘주원인’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① 물렀거라 → 물렀거라

‘물렀거라’가 바른 표기다. ‘물러있거라’는 ‘물러 있거라’의 준말 형태다.

⑤ 꺾일 → 꺾일

‘꺾다’가 올바른 표기다. ‘고집을 꺾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만 했다.’

⑪ 칠흑 → 칠흑

‘칠흑(漆黑)’이 올바른 표기다. 종종 ‘칠흑’으로 적는 예가 있는데 ‘땅’을 뜻하는 ‘흙’이 아니라 ‘검다’는 뜻의 ‘흑’이다. ‘칠(漆)’은 검은색의 ‘옷칠’을 말한다.

<표현>

③ 기록하는 등 남부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 기록했으며 남부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등’ 뒤에는 ‘기록하는 등 남부 대부분 지방이 높은 기온을 보였다’에서처럼 같은 종류의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문장의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④ 비롯한 → 비롯해

‘비롯한’은 뒤에 오는 말을 제한한다. ‘비롯한’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사과, 배를 비롯한 과일’에서처럼 ‘대구’보다 범위가 넓은 말이 와야 한다. ‘

⑨ 긴 발생 기간과 빈도도 늘었다 → 발생 기간이 길었고 빈도도 늘었다

‘긴 발생 기간’과 서술어 ‘늘었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알맞게 고쳐 쓴다.

⑩ 속출하고 있다 → 속출했다

‘속출했다’고 표현하는 게 간결하다. 더욱이 뒤에 오는 예가 지난해 발생한 일이다.

⑬ 관계자는 → 예보관

‘관계자’는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될 수 있으면 담당자나 직책을 밝히는 게 좋겠다. 그래야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9) 한국, 국제항공기구 이사국 4회 연속 진출

우리나라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①이사국 4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②ICAO 본부에서 열린 이사국 선거에서 4위로 이사국에 올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당선된 뒤 4회 연속 이사국 지위를 ③유지시킬 수 있게 됐다.

④ICAO 이사회는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⑤이들 이사국들은 국제 항공운송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들이 ⑥불편과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사국은 3개 그룹으로 구성돼 ⑦의견 교환을 나눈다. 일본·중국·미국 등이 참여한 1그룹(주요 항공)은 11개국, 멕시코·인도·싱가포르 등이 속한 2그룹은 12개국(시설 기여), 우리나라가 속한 3그룹(지역 대표)은 13개국이다.

161개국이 각각 13표를 던진 3그룹 선거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이 ⑧146표를 얻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우간다와 쿠바가 143표로 공동 2위, 우리나라가 141표를 얻어 모로코와 공동 4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는 127표를 얻어 5위로 이사국에 올랐고, 2004년에는 9위, 2001년에는 12위로 이사회에 입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사국 선거를 하루 앞두고 몬트리올 시내의 델타 호텔에서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⑨리셉션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항공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 항공전문가 무상교육과 ⑩ICAO 문서 전자화 사업지원 등 이사국 활동을 활발하게 ⑪전개해 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⑫이번 이사국에 4회 연속 진출함으로써 위상이 ⑬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날말>

② ④ ⑩ ICAO → 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항공기구

영어 머리글자 대신 우리말 용어로 적는다.

‘ICAO’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뜻하는 말인지 알기 어렵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⑨ 리셉션 → 축하연(회)/초대연(회)

외래어 대신 더 쉬운 말을 쓰도록 한다.

<표현>

① 이사국 4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 → 이사국에 4회 연속 진출했다
조사를 적절히 붙이고 불필요한 말은 뺀다. 그래야 간결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

③ 유지시킬 수 있게 → 유지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는’ 상황이 아니다. ‘-하다’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⑤ 이들 이사국들은 → 이사국들은

‘이들’은 빼는 게 간결하다.

⑥ 불편과 손실을 입지 → 불편을 겪거나 손실을 입지
'불편'과 연결되는 서술어가 없다. '불편'은 '겪다'와 어울린다.

⑦ 의견 교환을 나눈다 → 의견을 교환한다
'교환'이 '서로 주고받고 함'이라는 뜻이므로 '나누다'와 의미가 겹친다.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면 충분하다.

⑧ 146표를 얻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 146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앞쪽의 '얻다'는 표현하지 않는 게 더 간결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⑩ 전개해 왔다 → 전개했다
'왔다'는 반드시 필요한 말이 아니므로 '전개했다'로 고쳐 쓴다.

⑫ 이번 이사국에 → 이사국에
여기서 '이번'은 쓰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

⑬ 판이하게 달라질 → 크게 달라질
'판이하다'가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는 뜻이므로 '달라지다'와 의미가 겹친다. 겹치지 않게 고쳐 표현한다.

(10) 명품이 잘 팔린다...매출 신장률 1위로

'명품'이 올 상반기 백화점 판매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①20~30대의 명품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일부 백화점은 ②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명품 영업에 나섰다. 명품 관련 ③브로슈어도 등장했다.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는 9일 "백화점 판매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부문은 매출 신장률 21.1%를 기록한 명품이었다. ④걸잡을 수 없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의류(13.5)가 2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명품과 남성의류를 경기 회복의 지표로 본다. 이 품목들은 현금 ⑤결제 비율도 비교적 높다. 연구소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⑥이어질런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가정용품(13.0%), 여성캐주얼(11%), 식품(10.2%), 여성정장(9.0%)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백화점 홍보팀장은 "명품을 찾는 20~30대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신장률이 너무 ⑦가파라서 놀랄 정도"라고 전했다.

명품에 빠진 일부 20대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⑧살다시피하기도 한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의 상반기 매출을 보면 20대 매출은 35% 늘어난 반면 40대는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롯데백화점 명품관인 에비뉴엘도 올해 ⑨3월 말까지 1년간 20~30대가 구매 고객의 52%를 차지했다.

한편 상반기 전체 백화점 매출액은 9조 원으로 전년 ⑩동기 대비 8%, 대형 마트 매출액은 12조 5000억 원으로 10% 늘었다.

<띄어쓰기>

⑧ 살다시피하기도 → 살다시피 하기도

‘살다시피’와 ‘하다’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⑨ 월말까지 → 3월 말까지

숫자 ‘3’과 어울려 쓰인 ‘월’은 붙여 쓸 수 있다. ‘말’은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쓴다.

<맞춤법>

⑥ 이어질런지는 → 이어질는지

‘르는지’가 올바른 표기이다. ‘르런지’, ‘르른지’로 표기하는 예가 보이는데 모두 ‘르는지’로 적어야 옳다. ‘그를 보게 될런지’, ‘어떻게 생각할는지’

⑦ 가파라서 → 가팔라서

‘가팔라서’가 올바른 형태다. ‘가파르다’는 ‘가팔라’, ‘가파르니’ 등으로 활용된다. ‘오르다’가 ‘올라’, ‘오르니’ 등으로 활용되는 것과 같다.

<낱말>

② TF팀 → 특별팀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한다.

③ 브로슈어 → 안내 책자/안내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한다.

④ 걸잡을 → 견잡을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는 뜻을 지닌 말은 ‘견잡다’이다. ‘걸잡다’는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을 지녔다.

⑤ 결재 → 결제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 관계를 마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은 ‘결제’다. ‘결재’는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서류를 결재하다.’

<표현>

① 20~30대의 명품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 20~30대의

명품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분석이다’의 주체가 없는 문장이 돼 버렸다. 직접 취재한 내용이라면 ‘때문이다’로 끝내는 게 좋겠다.

⑩ 동기 → 같은 기간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쓴다.

(11) “아프간 대선 재검표”

유엔 선거민원위 부정선거 증거 발견

아프가니스탄 독립선거위원회가 다시 바빠졌다. 국제 독립 기구인 선거민원위원회(ECC)가 아프간 독립선거위원회에 재검표를 지시했다. 선거민원위 대변인은 공식 ①브리핑을 통해 “아프간 대선 기간에 부정이 있었으며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부정선거와 관련 있는 ②10여 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 후유증이 오래갈 것으로 ③예상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아프간 썬법’도 더욱 ④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달 20일 대선을 큰 혼란 없이 치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번 재검표 지시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9일 전했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⑤아프간전 여론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미국은 정당성을 잃은 정권과 ⑥함께 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고 부정 선거를 이유로 협력이 절실한 카르자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어렵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옳지 ⑦않느냐”⑧고 밝혀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⑨수개월 시간이 걸릴 재검표 기간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카르자이 대통령이 경쟁 후보였던 압둘라 압둘라 전 외무장관에게 새 정부 ⑩수립시 지분을 약속하는 등 협상하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동요했던 아프간 내 여론이 재검표 기간 동안 잠잠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편 선거민원위의 재검표 지시는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인 54.1%를 득표했다는 선거위원회의 발표와 함께 나왔다. 가즈니와 칸다하르, 파크티카 주(州) 등에서는 재검표를 위한 ⑪작업이 진행 중이다.

<떡어쓰기>

⑥ 함께 한다는 → 함께한다는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또는 때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는 뜻일 때 ‘함께 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함께’를 빼고 ‘하다’만 써도 의미가 통할 때는 띄어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붙여 쓰면 된다. ‘어려움을 함께하다.’(○), ‘나와 공부를 함께 하자.’(○), 수술을 앞두고 자리를 함께 한 홍길동 씨와 김길동 씨.(x)

⑩ 수립시 → 수립 시

‘수립’과 ‘시’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맞춤법>

⑦ 않느냐 → 않으나

‘옳다’, ‘좋다’, ‘아름답다’ 등 형용사 뒤에 오는 ‘않다’는 ‘않으나’로 활용된다.

‘가다’, ‘먹다’, ‘묻다’ 등 동사 뒤에 오는 ‘않다’는 ‘않느냐’로 활용된다.

<표현>

① 브리핑을 통해 → 브리핑에서

‘브리핑에서’로 쓰는 것이 간결하고 자연스럽다.

② 10여 명의 책임을 → 10여 명에게 책임을

조사 ‘의’ 대신 ‘에게’가 와야 어울린다.

③ 예상되고 있다 → 예상된다

여기서는 ‘예상되고 있다’보다 ‘예상된다’라고 쓰는 게 간결하다.

④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것으로 전해졌다’가 불필요해 보인다.

⑤ 아프간전 여론 → 아프간전에 대한 여론

지나치게 생략을 해서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다. ‘~에 대한’을 넣어 자연스럽게 고쳐 쓴다.

⑧ 고 밝혀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 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앞뒤 연결이 적절하지 않아 어색한 표현이 됐다.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고쳐 쓴다.

⑨ 수개월 시간이 걸릴 → 수개월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은 넣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럽다.

⑪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작업을 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 쓴다.

(12) <경제자유구역 ①35개지구 손본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과다지정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FEZ)이 ②본격 재정비된다.

지식경제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35개 단위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평가단이 실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6개 구역 93개 단위지구 중 35개 지구가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6일부터 ③두 달여 동안 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해제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EZ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FEZ 입주 기업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줬지만 중복투자, 실적 부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별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없고 유치기업도 특정 업종에 ④치중돼 있다는 비판이다.

지경부는 “과대지정, 장기간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선택과 집중 ⑤원칙에 따른 조기개발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실사 배경을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⑥평가단의 의견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현행 유지, 해제, 유예기간 부여, 면적 변경 등의 ⑦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띄어쓰기>

① 35개지구 → 35개 지구

‘지구’는 띄어 쓴다.

<낱말>

② 본격 → 본격적으로

‘제 궤도에 올라 제격에 맞게 적극적인’의 뜻에 맞도록 ‘본격적으로’를 쓴다.

③ 두 달여 동안 실사를 마친 뒤 → 두 달여 동안 실사를 한 뒤

두 달여 동안 실사를 ‘마치는’ 것이 아니므로 ‘한 뒤’로 쓰는 것이 문맥에 맞다.

<표현>

④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다. →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비판이다'는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원칙에 따른 조기개발 유도를 위한 것 → 원칙에 따라 조기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

명사를 여럿 나열하기보다는 '을 ~하려는 것'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평가단의 의견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 평가단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는 성립하지만 '의견은'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듣고'를 넣어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⑦ 조치를 취할 예정 → 조치할 예정

'조치를 취하다'는 간결하지 못하므로 '~등을 조치할 예정' 혹은 '등을 취할 예정'으로 고쳐 쓴다.

(13) <시중銀 예금금리, 저축은행 추월했다>

부동산 ①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예금금리가 저축은행의 금리를 넘어서는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②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돈을 굴릴 곳을 찾지 못해 예금금리 인상에 ③주춤하는 사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잇따라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④전망이다.

○ 시중은행 예금금리 저축은행 앞질러

5일 ⑤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⑥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4.0~4.5% 수준이다. 자산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솔로몬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0%로 가장 낮았으며 토마토 한국 현대스위스 등 서울과 경기 지역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연 4.2%의 금리를 ⑦유지 중이다. ⑧이들 저축은행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정기예금 금리를 올린 곳은 HK저축은행이 유일하다.

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달 중순 이후 정기예금 금리를 0.1~0.5%포인트씩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 저축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 2%포인트가량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안정성 면에서 규모가 큰 시중은행들에 밀리는 저축은행들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줘야 한다. 실제 올 4월까지도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 예금금리 차는 1.2%포인트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차이는 5월 0.67%포인트, 6월 0.52%포인트로 갈수록 줄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이처럼 금리 차가 크게 ⑨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선불리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자를 주고 예금을 유치하더라도 마땅히 운용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보장해주던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이 ⑩커진데다 개인 신용대출도 최근 금리 인하 분위기로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띄어쓰기>

⑩ 커진데다 → 커진 데다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낱말>

① PF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로마자 약어는 널리 알려진 약어 외에는 처음 쓸 때 되도록 풀이를 한글로 적어준다.

<표현>

②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 인상했는데도

‘~함에도 불구하고’는 간결하지 못한 표현이다. 대부분 ‘~했는데도’로 쓰면 간결하다.

③ 주춤하는 사이 → 주춤하는 사이에

‘주춤하는 사이’는 ‘주춤하는 사이에’로 쓰면 자연스럽다.

④ 전망이다 →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망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수준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수준이라고 밝혔다’

‘~에 따르면 ~이다’는 ‘~은 ~라고 밝혔다’ 혹은 ‘~에 따르면 ~로 나타났다

고 한다'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10위권 안에 드는 → 10위권에서

중복 표현이다. '-권'은 '범위' 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지역'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10위권인' 혹은 '10위권에 드는'으로도 충분하다.

⑦ 유지 중이다 → 유지하고 있다

'유지 중이다'는 좀 더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인 '유지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⑧ 이들 저축은행 → 이 저축은행들은

'이들 저축은행'보다는 '이 저축은행들은'이 더 자연스럽다.'

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줄어들고 있는데도

'~함에도 불구하고'는 간결하지 못한 표현이다. '~하는데도'로 쓰는 것이 간결하다.

*그러나 써야 할 때도 있다. 예) '해외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14) 골드만삭스 "환율 1년 후 1050원"

①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앞으로도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 원-달러 환율이 12개월 후 1050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시장 ②최강자로 자임하는 골드만삭스의 마크 텐 외환전략 담당 부사장은 7일 주미 한국상공회의소(③코참)가 주최한 환율전망 세미나에서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에 현재 1120원 수준인 원-달러 환율이 6개월 후 달러당 1100원, 12개월 후 달러당 1050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텐 부사장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④나선 가운데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와 막대한 외국인 ⑤주식투자 자금유입으로 엄청난 절상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만 보면 달러당 1000원이 붕괴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면서도 "한국 외환당국의 방어 노력 등으로 ⑥12개월내 ⑦이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달러화는 향후 약세를 보일 것으로 ⑧전망됐다.

텐 부사장은 현재 1.39달러 수준인 유로화는 *12개월내 1.55달러로 오르고 엔화도 추가로 절상돼 *6개월내 달러당 81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위안화도 현재 달러당 6.68위안에서 *1년내 6.29위안 수준으로 완만

하게 절상될 것으로 ⑨예측됐다.

그는 또 “⑩배추값 등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목표치(2~4%)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14일 열리는 10월 ⑪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띄어쓰기>

⑤ 주식투자 자금유입으로 엄청난 절상압력을 → 주식 투자 자금 유입으로 엄청난 절상 압력을

‘주식투자’ ‘자금유입’ ‘절상압력’은 모두 전문용어가 아니므로 ‘주식 투자’ ‘자금 유입’ ‘절상 압력’으로 각각 띄어 쓴다.

⑥ 12개월내 → 12개월 내

‘내’는 한 단어이므로 ‘12개월 내’로 띄어 쓴다. ‘12개월 안에’로 쓰면 더 자연스럽다. 뒷부분에서 ‘6개월내’ ‘1년내’ 등도 각각 ‘6개월 내’ ‘1년 내’로 띄어 쓴다.

⑦ 이같은 → 이 같은

두 단어이므로 ‘이 같은’으로 띄어 쓴다. 참고로 ‘이같이’에서 ‘같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⑩ 배추값 → 배춧값

우리말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배춧값’으로 쓴다.

<낱말>

② 최강자로 자임하는 → 최강자를 자임하는

‘자임하다’는 타동사이므로 ‘최강자를 자임하는’으로 써야 문법에 맞다.

③ ‘코참’은 불필요한 표현이다. ‘주미 한국상공회의소’로도 충분하다.

⑪ 금통위 → 금융통화위원회

단체 이름은 처음 나올 때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전체 이름을 다 적어준다.

<표현>

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원화 가치가 ~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 따르면 ~이다’ 형태의 문장은 ‘~는 ~라고 했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나선 가운데 → 양적완화에 나선 가운데

양적완화를 나서는 것이 아니므로 '나선' 앞에 '양적완화를'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적완화에 나선 가운데'로 대응관계에 맞게 쓴다.

⑧ ~전망됐다 → ~전망했다

이 문장은 앞 문장의 주어 '탠 부사장(그)'이 생략된 형태라 '전망됐다'로 쓰면 어색하다. '전망했다'로 쓴다.

⑨ 예측됐다 → 예측했다

이 문장 역시 앞 문장의 주어 '탠 부사장(그)'이 주어이므로 '예측했다'로 쓴다.

(15) 대기업 태양광 투자 늘려

태양광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프랑스 ①알사스 주의 유리·건축자재 업체인 생고뱅 그룹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2012년까지 국내에 박막태양전지 공장을 ②설립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생고뱅 그룹 본사에서 드 샬렌다 생고뱅 회장과 함께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 ③서명식을 가졌다. 양 사는 총 투자금액 2200억 원 가운데 절반씩 투자해 국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박막태양전지는 유리 기판을 주원료로 얇은 화합물을 입혀 만든 태양전지다. 현재 태양전지 시장은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하는 결정형 태양전지가 약 80%를 ④차지하고 있으나 박막태양전지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⑤공장 완공 직후에는 연간 100MW 규모의 박막태양전지를 생산하고 2015년까지 연간 400MW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생산 ⑥에너지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대기업도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를 ⑦늘여가는 중이다.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L&C는 지난달 29일 ⑧5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충북 음성에 태양광전지 핵심 소재인 'EVA 시트'를 5만 t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STX그룹은 계열사인 STX솔라를 통해 국내외에서 태양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STX솔라는 ⑦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생산설비를 현재의 60MW에서 180MW로 3배 확대할 예정이라고 7월 밝혔다. 웅진그룹도 지난달 오명 전 부총리를 영입하며 ⑨태양광에너지 분야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⑩전문가들은 태양광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므

로 결과에 성급하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띄어쓰기>

⑧ 5000억원 → 5000억 원

‘원’은 화폐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5000억 원’으로 띄어 쓴다.

<맞춤법>

① 알사스 주 → 알자스 주

프랑스어 표기법에 따라 ‘Alsace’는 ‘알자스’로 표기한다.

② 설립키로 → 설립하기로/설립기로

‘-하다’가 준말 형태로 활용할 때 어근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아주 줄어든 형태로 쓴다. 예) 생각건대, 못지않다, 익숙지, 깨끗지, 녹록지 등.

⑥ 에너지량 → 에너지양

고유어와 외래어 명사 뒤에는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량’을 쓰지 않고 ‘양’을 쓴다.

<낱말>

③ 서명식을 가졌다 → 서명식을 했다/서명식을 치렀다

‘가지다’는 ‘소유’의 의미가 아닐 때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말 동사로 쓸 수 있다.

⑦ 늘어가는 → 늘려가는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거나 아래로 처지게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본디보다 투자를 더 하는 것이므로 ‘늘리다’가 적절한 어휘다.

<표현>

④ 차지하고 있으나 박막태양전지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 차지하고 있지만 2017년에는 박막 태양전지의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공장 완공 직후에는 → 공장을 완공한 후에는

명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공장을 완공한 후에는’이 자연스럽다.

⑨ 태양광에너지 분야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부분은 명사가 계속 나열되어 자연스럽게 못하므로 '태양광에너지 분야에 진출할 기회를'로 써주고, 뒷부분은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로 간결하게 쓴다. '-하고 있는'은 '-하는'으로 간결하게 쓸 수 있다.

⑩ 전문가들은~ → ○○○ 전문가는~

'전문가들은'은 범위가 너무 넓어 기사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인지 밝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인다.

2. 해설

(1) 김정은 등장 알리는 신호탄 될까

北 당대표자회 대규모 진행...주요 안건 다뤄질 듯

후계구도, 당 노선 등 정책 변화 땀 남북관계에도 영향

이번 주에 열리는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향후 북한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①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간소하게 진행된 1·2차 때와 달리 당대회를 ②방불하는 대대적 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③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후계구도 및 당 노선, 기타 ④정책 상 큰 변화가 발표될 경우 이에 대한 당의 지지와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계구도 문제를 우선 ⑤매듭 짓기 위해 당 노선 등에 관한 논의는 ⑥유보시킬 가능성도 있다.

1966년 열린 제2차 당대표자회의 경우 총비서 직제 개편, 경제발전 7개년 계획 등 굵직한 ⑦프로젝트들이 논의됐다. 하지만 경제발전 계획은 제대로 ⑧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당대표자회는 ⑨인적 개편을 통해 당을 정상화하고, 김정은 전면 등장에 따른 권력 세대교체,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 발표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다.

한편 북한의 후계구도 변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⑩미칠 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관계자들은 최근 모처에서 만나 이에 관해 ⑪협의를 벌였다.

<띄어쓰기>

① 불러 일으킬 → 불러일으킬

‘불러일으키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④ 정책 상 → 정책상

‘상(上)’은 구체적 물체의 위를 가리킬 때는 명사로 보아 띄고(예:도로 상, 지구 상), 추상적 공간을 가리킬 때는 접미사로 보아 붙인다(예:인터넷상, 전설상, 미관상, 통신상).

⑤ 매듭 짓기 → 매듭짓기

‘매듭짓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⑩ 미칠 지 → 미칠지

‘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 어미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낱말>

⑥ 유보시킬 → 유보할

사동을 뜻하는 ‘시키다’를 쓸 필요가 없다. ‘뒤로 미룰’과 같은 쉬운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⑦ 프로젝트 → 사업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⑧ 달성되지 → 이행되지

‘계획’은 ‘실행하다’ 혹은 ‘이행하다’와 잘 호응된다. ‘달성하다’와 호응하는 말은 ‘목표’ 혹은 ‘목적’이다.

<표현>

② 방불하는 → 방불케 하는

‘방불하다’는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뜻이다. 본문처럼 ‘무엇처럼 느끼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방불케 하다’이다.

③ 시사하고 있는 → 시사하는

현재형 ‘한다’를 쓰면 될 자리에 굳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고 있다’를 쓸 필요가 없다.

⑨ 인적 개편을 통해 당을 정상화하고 → 인적 개편을 통한 당의 정상화

앞말은 문장이고 뒷말은 명사구여서 연결이 바르지 않다.

⑪ 협의를 벌였다 → 협의했다.

‘명사+하다’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굳이 복잡하게 ‘명사+를+동사’

의 구조로 만들 필요가 없다.

(2) 매몰 광원들 돈방석에 앉는다

영웅 대접 받아 인생역전 기회

언론 섭외 0순위...벼락부자 후유증 조짐도

칠레 산호세의 탄광에 매몰됐던 광원들이 ①영웅 대접은 물론 돈방석에 앉게 됐다.

매몰 당시에도 세계적인 관심을 끈 이들은 구조된 ②후에도 한동안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③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적인 이들의 생존 ④스토리를 다룬 책, 영화도 봇물처럼 쏟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33인의 '귀환 영웅'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다. 광원 가족들은 이미 광산 소유 ⑤업체에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에도 비슷한 액수의 배상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기에 칠레의 유명한 광산 업자가 66만 달러를, 동료 광원들이 4만 달러를 성금으로 ⑥내놓는 등 이들은 두둑한 현찰을 손에 쥐게 된다.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초청도 예정돼 있다. 또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의도 쇄도해 ⑦새로운 인생을 살 것으로 보인다. 구조된 광원 요니 바리오스는 "우리는 아직 어떤 제안도 받아들인 게 없다"며 "재단을 만들어서 책이나 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⑧구조된 광원 33명 중 특히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⑨작업반장으로써 마지막으로 구조된 루이스 우르수아, 대변인 역할을 해온 마리오 세폴베다는 여러 언론의 섭외 0순위가 될 수 있다. 매몰 사고로 불륜이 ⑩들통난 요니 바리오스가 아내와 애인 중 누구를 선택할지도 흥미거리다. 인생역전이 예정된 그를 ⑪놓고 아내와 애인의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볼리비아 출신인 카를로스 마마니는 그의 사연이 고국에 알려지면서 벌써 볼리비아 대통령으로부터 집과 일자리를 약속받기도 했다.

<띄어쓰기>

⑩ 들통난 → 들통 난

'들통나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낱말>

② 후에도 → 뒤에도

한자어 대신 순수 우리말을 쓰면 더 구어적인 표현이 된다.

③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 집중 조명을 받을/관심을 끌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④ 스토리 → 이야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표현>

① 영웅 대접은 물론 돈방석에 앉게 됐다. →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물론 돈방석에도 앉게 됐다.

‘영웅 대접’을 받쳐 주는 서술어를 내세워야 한다. ‘영웅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방석에도 앉게 됐다.’로 할 수도 있다.

⑤ 업체에 → 업체를 상대로

소송 서류를 내는 곳은 업체가 아니고 법원이다. 이 문장은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표현에서 ‘법원에’를 생략한 것이다.

⑥ 내놓는 등 → 내놓아

‘A하는 등 B한다’의 형태에서, A는 B의 근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본문은 ‘...4만 달러를 성금으로 내놓는 등 각계에서 성금을 보내와...’ 정도로 할 수 있고, ‘내놓는 등’을 ‘내놓아’로 간단히 바꿀 수도 있다.

⑦ 새로운 → 이들은 새로운

주어 ‘이들은’이 있어야 자연스럽다.

⑧ 구조된 광원 33명 중 → 내용 삭제

이미 설명된 내용인데다 문장 내에 ‘광원’이 두 번 나와 부자연스럽다.

⑨ 작업반장으로써 → 작업반장으로서

‘자격’을 나타낼 때는 ‘로써’가 맞는 표기이다. ‘로써’는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매로써 다스린다.

⑩ 놓고 → 놓고 벌이는

뒤의 ‘싸움’을 꾸미는 관형어를 내세운다. ‘...놓고 아내와 애인이 벌이는 싸움...’으로 해도 된다.

(3) 물자도 얻고 대화 물꼬도 타진

<북한의 쌀지원 요청에 담긴 뜻>

북한이 지난 4일 ①대한적십자사(약칭 한적)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지원을 요청한 것은 ②실질적 피해 복구 지원과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식량과 물자를 요구한 것은 ③홍수 피해와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쌀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우리 정부 당국자의 쌀 지원 검토 사실이 보도된 지난 5일보다 하루 앞선다. 북측이 자존심을 접고 ④우리측에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고, 홍수 피해를 ⑤극복하는데 중장비와 시멘트가 ⑥시급하다는 뜻도 담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북측이 한적을 통해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데다 쌀이 군량미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여겨 일절 대북 쌀 지원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적은 표면적으로는 ⑦민간단체이나 ⑧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준정부기구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한적의 쌀 지원은 일반 ⑨민간단체가 쌀을 지원하는 것과는 ⑩그 담긴 의미가 다르다. 더욱이 당초 한적이 ⑪지난 달 31일 북측에 제안했던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는 ⑫쌀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이 ⑬한적을 통한 쌀 지원을 역제의한 것은 ⑭당국간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쌀 지원 요청 이틀 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승호를 송환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 왔다. 이는 남측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 지원을 재개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띄어쓰기>

④ 우리측 → 우리 측

‘측’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단, ‘남측/북측’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⑤ 극복하는데 → 극복하는 데

‘데’는 ‘곳/것/일’ 등의 의미로 쓰이면 의존명사 기능을 하므로 띄어 쓴다. ‘데’ 뒤에 조사 ‘에’를 붙였을 때 뜻이 연결되면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⑪ 지난 달 → 지난달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는 한 단어이다.

⑭ 당국간 → 당국 간

‘간’은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의미를 나타내면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쓰고, 대상과 대상 사이를 뜻할 때는 의존명사로 보아 띄어 쓴다.

<표현>

① 대한적십자사 채널을 통해 →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채널'을 생략하면 더 간결하다.

② 실질적 피해복구 지원 →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명사화 나열을 피한다.

③ 홍수 피해와 경제난이 심각하다 → 홍수 피해가 막대하고 경제난이 심
각하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다.

⑥ 시급하다는 → 시급히 필요하다는
'시멘트가 시급하다'는 말은 의미가 잘 안 통한다.

⑦ 민간단체이나 → 민간단체이지만

이때의 '이나'는 부정의 뜻으로 쓰였지만 '책이나 정책'과 같은 선택의 뜻
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만'을 쓴다.

⑧ 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정부로부터 예산
을 지원 받고

명사만 나열하면 의미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⑨ 민간단체가 쌀을 지원하는 →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쌀을'을 생략한다. 또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것
과는'을 '민간단체의 지원과는'으로 바꾸어 앞의 '한적의 쌀 지원'과 형태를 일
치시킨다.

⑩ 그 담긴 의미가 → 의미가

'그 담긴'을 빼면 간결하다.

⑫ 쌀이 없었다 → 쌀이 포함되지 않았다.

의미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

⑬ 한적을 통한 → 한적을 통해

서술어 '역제외하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쌀 지원'이지 '한적을 통
한 쌀 지원'이 아니다. 따라서 '한적을 통해'로 바꾸어 수식구조를 달리 한다.

(4) "옳거니, 이번엔 개헌이다"

여야, 정기국회서 '개헌' 놓고 일전 태세

정기국회가 ①개회하면서 정치권에 ②또 다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③개헌 논의는 18대 국회 초반부터 각 당의 ④워크샵이나 소모임에서 이따

금 논의되다가 최근 주요 ⑤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차기 대선 주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본격 논의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여야 모두 정치 개혁보다는 ⑥당리당략적 목적으로 개헌 카드를 사용했다는 ⑦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여야가 지금 와서 순수한 의도로 개헌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론에 불을 지핀 ⑧인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개헌에 줄곧 ⑨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정상회의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슬며시 ⑩담겼던 발을 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개헌 자체에 대한 소신은 뚜렷하지 않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⑪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자 “참 나쁜 대통령”⑫이라며 비판했다. 정권 연장을 노리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박 전 대표는 당의 개헌 추진 작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의 ⑬회동에서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며 부정적 뉘앙스를 풍겼다.

<띄어쓰기>

② 또 다시 → 또다시

‘또다시’는 한 낱말이다. 이와 달리 ‘또 다른’은 한 낱말이 아니므로 띄어 쓴다.

<맞춤법>

④ 워크샵 → 워크숍

바른 외래어 표기는 ‘워크숍’이다.

⑩ 담겼던 → 담갔던

본딧말이 ‘담그다’이고, 활용형은 ‘담가/담근/담갔던’ 등이다.

<낱말>

① 개최하면서 → 열리면서/시작되면서

쉬운 말로 바꾼다.

⑤ 이슈 → 쟁점/논쟁거리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⑧ 인사 → 사람/인물

‘인사’는 ‘사람’의 높임말이다. 신문에서는 높임말이나 낮춤말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⑨ 알레르기 → 거부/과민

우리말 순화어로 바꾼다.

⑪ 원 포인트 → 일회성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⑬ 회동 → 만남

‘회동’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에게 주로 붙이는 차별적 표현에 속한다.

<표현>

③ 논의 → 문제

‘논의는~논의되다’의 형태는 동어 반복으로 부자연스럽다.

⑥ 당리당락적 목적으로 → 당리당락을 위해

‘-적 목적’은 단어의 조합이 부자연스럽다.

⑦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비판을 받기도 했다’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외국어투로서 우리말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⑫ 이라며 → 이라고

인용 조사 앞의 내용이 인용 동사 ‘비난하다’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무엇이라고 비난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5) 영화 ‘이끼’가 만화 ‘이끼’를 망쳐냈다?

만화 팬들, 원작 왜곡 여부로 인터넷서 시끌

영화 ‘이끼’가 초반부터 관객 물이를 하고 있다. 개봉 ①9일째 관객 250만 명을 동원했다. 이끼는 강우석 감독이 4년의 공백 끝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영화 이끼는 만화 ‘이끼’에 빗을 많이 졌다. 만화에서 빌려 온 등장인물과 대사 때문만은 아니다. 영화 이끼는 원작 이끼와 ②같거나 달라지려는 선택을 통해 만들어졌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둘의 밀고 당기는 긴장 속에 ③분명해 졌다.

④헌데, 요즘 ⑤인터넷에 영화 이끼의 원작 훼손 논쟁이 한창이다. 원작의 팬들은 영화가 ⑥미스터리 드릴러를 산골 마을의 나쁜 이장 이야기로 망쳐놓았다고 분개한다. 어떤 이는 두 작품이 충분히 비슷하지 않다며, 다른 이

는 충분히 다르지 않다며 화를 낸다.

만화는 ⑦스크린에 투영되면서 크게 두 가지가 ⑧틀려졌다. 먼저 시간 구성. 후반부 플래시백으로 등장인물의 과거를 폭로하는 ⑨드릴러식 구성은 영화에서 시간 순으로 평이하게 ⑩바뀌어졌다. 두 번째는 주인공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부각된 ⑪수퍼마켓 여자 '영지'의 인물 설정. 누리꾼 논란의 핵심도 이 둘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영화 이끼 덕분에 만화 이끼도 인기가 상종가다. 영화 개봉 이후 만화 이끼의 흥행 ⑫내역서를 살펴보자. 온라인 ⑬클릭수는 6~7배나 늘었다. 초판 ⑭3000부마져 팔리지 않던 단행본 '이끼1~5' 판매부수는 5만 부를 넘어섰다. 하루 주문량이 2000여 부씩 쏟아져 공급이 ⑮떨리는 상황이다. 출판사 관계자는 "윤태호 작가가 ⑯매니아 취향이어서 책이 잘 나가지는 않았는데 영화 ⑰탓에 주문이 밀려든다"고 했다. 영화 이끼가 지난 10여 년간 지겹게 ⑱따라 붙던 '⑲마이너 감성의 작가'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게 한 것이다.

<띄어쓰기>

③ 분명해 졌다 → 분명해졌다

'-지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아/어)지다'의 형태로 붙을 때는 보조동사로 보아 붙여 쓴다.

⑱ 따라 붙던 → 따라붙던

'따라붙다'는 한 단어이다.

<맞춤법>

④ 헌데 → 한데

'그러헌데/그런데'를 뜻하는 말은 '헌데'가 아닌 '한데'이다.

⑥ 미스터리 드릴러 → 미스터리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가 바른 표기이다.

⑨ 드릴러 → 스릴러

드릴러는 스릴러가 바른 표기이다.

⑪ 수퍼마켓 → 슈퍼마켓

'super'의 바른 표기는 '슈퍼'이다.

⑮ 떨리는 → 달리는

'재물, 기술, 힘 따위가 모자라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달리다'이다.

⑯ 매니아 → 마니아

‘매니아’의 바른 표기는 ‘마니아’이다.

<낱말>

⑦ 스크린 → (영화) 화면

우리말 순화어로 바꾼다.

⑧ 틀려졌다 → 달라졌다

‘틀리다’는 ‘바르지 못하다/어긋나다’의 뜻이고 ‘다르다’는 ‘비교 대상이 같지 않다’는 뜻이다.

⑫ 내역서 → 명세서

쉬운 말로 바꾼다.

⑬ 클릭수 → 조회수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⑰ 마이너 → 비주류/소수파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표현>

① 9일째 → 9일 만에

‘9일째’라고 할 경우 ‘9일째 되는 날 하루에’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② 같거나 → 같아지거나

뒷말 ‘달라지다’와 형태를 일치시킨다.

⑤ 인터넷에 → 인터넷에서

뒷말 ‘논쟁이 한창이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려면 조사 ‘에서’를 넣어야 한다.

⑩ 바뀌어졌다 → 바뀌었다

‘바뀌어지다’는 겹피동 형태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⑭ 3000부마저 → 3000부조차

‘마저’는 ‘~까지’의 개념으로, ‘조차’는 ‘~는 고사하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구분하기 쉽다.

⑰ 탓에 → 덕에/덕분에

‘탓’은 부정, ‘덕/덕분’은 긍정의 개념에 주로 쓰인다.

(6) 사람, 공간, 기억의 틈바구니를 헤집다
곽효환의 두 번째 시집 ‘지도에 없는 집’

길에서 쓴 시는 길을 닦았다. 길을 ①걸는데 꼭 지도를 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②시어(詩語)의 경우 또한 굳이 지도를 펼쳐 들지 않는다. ‘농무가 자욱한 길’인가 하면, ‘파이프오르간 소리 아득히 들리는 작은 광장’이기도 하고, ③아즈텍문명 속 ‘기억의 형해만 남은 물의 신전’ 앞이기도 하다. 이렇게 서성이든 발걸음은 어떠한 공간 속에서 ④경계짓기를 거부한다. 거듭되는 시어의 여정 또한 공간과 시간과 기억의 어느 범주에도 ⑤정주(定住)를 거부한다.

⑥시인 곽효환(43)의 두 번째 시집 ‘지도에 없는 집’(문학과지성 펴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고, 낮선 공간과 공간 사이를 헤매며, 기억과 기억의 틈바구니를 헤집은 뒤 만들어진 발자국으로 써 내려간 작품들이다. 2006년 첫 번째 시집 ‘인디오의 여인’을 펴낸 뒤 4년 만에 내놓은 시집에서 곽효환은 자신의 시 원형질을 새삼 확인한다. ⑦그리고 나서 선언하듯 당당히 노래한다. ‘지도에 없는 길이 끝나는 그곳에/누구도 허물 수 없는 집 한 채 온전히 짓고 돌아왔다’(표제 작 ‘지도에 없는 집’).

그의 시는 첫 번째 시집이 그랬듯 ⑧끝 없이 대륙 곳곳을 떠돈다. 북방의 칼바람과 대륙의 광활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애써 옹혼함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시의 여정은 ‘전주천 공수레 다리 아래’에서 띄워 보낸 ‘고무신 배’에서 출발한다. 작은 개울에서 시작해 멕시코의 붉은 고원, 중국 대륙의 열하·고비 사막·상하이·난징 등으로 이어진다.

<띄어쓰기>

① 걸는데 → 걸는 데

‘데’가 ‘곳, 장소, 일, 것, 경우’ 등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일 때는 앞말과 띄어 쓴다. 여기서는 ‘걸는 것’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데’ 뒤에 조사 ‘에’를 붙일 수 있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면 된다. ‘밥을 먹는데(에×) 그가 왔다.’ 여기서 ‘-는데’는 어미다. ‘밥을 먹는 데(에○) 두 시간이나 걸렸다’에서 ‘데’는 ‘것’의 뜻으로 쓰였다.

④ 경계짓기를 → 경계 짓기를

‘경계’와 ‘짓다’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결론짓다, 결정짓다, 농사짓다, 눈물짓다, 종결짓다, 죄짓다, 한숨짓다 등은 한 단어이다.

⑧ 끝 없이 → 끝없이

‘끝없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거침없이, 관계없이, 꾸밈없이, 남김없이, 너나없이, 다름없이, 밤낮없이, 보잘것없이, 빈틈없이, 상관없이, 유례없이, 터무니없이, 틀림없이, 힘없이 등도 한 단어이다.

<맞춤법>

③ 아즈텍문명 → 아스테카문명
'아스테카문명'이 올바른 표기다.

<표현>

② 시어(詩語)의 경우 → 시어(詩語)
여기서는 '경우'란 표현을 하지 않는 게 간결하고 자연스럽다.

⑤ 정주(定住)를 → 정주하기를
앞의 '범주에도'와 어울리는 서술어가 와야 자연스럽다.

⑥ 시인 곽효환(43)의 두 번째 시집 '지도에 없는 집'(문학과지성 펴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고, 낮선 공간과 공간 사이를 헤매며, 기억과 기억의 틈바구니를 헤집은 뒤 만들어진 발자국으로 써내려간 작품들이다 → 시인 곽효환(43)의 두 번째 시집 '지도에 없는 집'(문학과지성 펴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고, ... 발자국으로 써 내려간 작품들로 채워졌다
주어 '지도에 없는 집'과 서술어 '작품들이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어울리는 서술어로 고쳐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⑦ 그리고 나서 → 그러고 나서
'-고 나서' 앞에는 '보고 나서', '자고 나서', '먹고 나서'에서처럼 동사만 온다. '그러고 나서'는 동사 '그러다'와 '-고 나서'가 결합한 말이다. '그렇게 하다'는 뜻을 가진 '그러다'라는 말이 있다.

(7) 닭 한 마리 전골과 땅콩 조림

갈끔·시원한 육수에 카~

요리 학원의 다섯 번째 수업은 닭 한 마리 전골이다. 삼계탕보다 요리법이 더 간편하다. 게다가 닭은 누구에게나 잘 ①맛을 뺏더러 여름에 허해진 기를 보충하는 데 그만이라는 게 요리 선생님의 설명이다.

서울 종로5가에 ②다닥다닥 모여 있는 닭 한 마리 칼국수 전문점은 지난해 말 화재를 당했어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커다란 냄비에 닭 한 마리를 풍덩

국물에 닭가 주는데 직접 가위로 잘라 먹는 재미가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육수에 중독되거나 ③푸짐하고 저렴한 값에 반해서 ④한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찾는 사람들이 많다.

닭은 갈빗살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서 핏물을 빼고 깨끗이 손질한다. ⑤끓는 물에 데친 닭을 물 1.5ℓ에 양념을 넣어 끓이다 감자, 양파도 넣어 익힌다. 양념은 조선간장 1큰술, 다진 마늘 3큰술, 고추장 반 큰술, 고춧가루 1큰술, 마른고추 ⑥같은 것 2큰술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어 만든다. 닭 한 마리 전골이 끓으면 대파와 부추를 넣어 ⑦완성시킨다. 닭고기를 다 먹은 다음 칼국수를 넣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손색없다.

단순한 조리법이지만 국물 맛이 깔끔하고 시원하다. 고기 국물이라도 텁텁하지 않다. 여기에 닭고기를 특제 소스에 찍어 먹다 보면 한 마리가 순식간에 없어진다. 서양 간장인 우스터소스 1큰술에 식초, 설탕, 간장, 물을 3큰술 정도씩 섞는다. 기호에 따라 겨자나 고춧가루를 섞어도 맛있다. 물 대신 소주를 넣고 끓인 다음 식혀서 먹으면 ⑧생각치 못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땅콩 ⑨조림의 경우 닭 한 마리 전골은 물론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밑반찬이다.

<띄어쓰기>

① 맛을 뽀더러 → 맛을 뽀더러

‘을(르)뽀더러’는 하나의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새로 들어온 직원은 일도 잘할뽀더러 성격도 좋다.’

④ 한 여름 → 한여름

‘한-’은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붙여 쓴다. ‘한겨울’, ‘한가을’, ‘한봄’, ‘한낮’, ‘한가운데’, ‘한밤중’, ‘한복판’.

<맞춤법>

⑥ 같은 → 간

‘갈다’는 ‘간/갈아/가니’ 등으로 활용된다. ‘울다’가 ‘운/울어/우니’처럼 활용되는 것과 같다.

⑧ 생각치 → 생각지

‘생각하지’를 줄여 적을 때 ‘하’는 아주 준 것으로 본다. ‘깨끗지’, ‘넉넉지’, ‘익숙지’.

‘하다’ 앞의 받침이 [ㄱ], [ㄷ], [비]로 소리 나는 경우 ‘하’가 통째로 줄어든

다. 거북하지 → 거북지, 깨끗하지 → 깨끗지,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 섭섭지, 추측하건대 → 추측건대

<표현>

② 다닥다닥 모여 있는 → 다닥다닥 붙어 있는/웅기종기 모여 있는/모여 있는

‘다닥다닥 모여 있는’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닥다닥’과 어울리는 말이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다닥다닥’은 ‘자그마한 것들이 한곳에 많이 붙어 있는 모양’을 뜻한다.

③ 푸짐하고 저렴한 값에 반해서 →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값에
‘값’은 ‘푸짐’할 수 없다. ‘푸짐하다’와 어울리는 말이 와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⑤ 끓는 물에 데친 닭을 물 1.5ℓ에 양념을 넣어 끓이다 → 물 1.5ℓ에 양념을 풀고 데친 닭을 넣어 끓이다

앞뒤 말들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 어색한 표현이 됐다. 말의 순서를 조정하고 적당한 서술어를 써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⑦ 완성시킨다 → 완성한다
‘-시키다’는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한다는 뜻을 더한다.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므로 ‘완성한다’가 좋겠다.

⑨ 조립의 경우 → 조립은
여기서 ‘경우’는 불필요한 표현이다. ‘경우’를 빼고 ‘조립은’이라고 하는 게 간결하다.

(8) ‘전쟁터’ 야구판 그래도 예의는 있다

프로야구가 ①유래없는 흥행 성공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들이 최근 벌어졌다. 곧 불문을 위반이다. 불문율은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일종의 예의다. ②야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감정이 개입된다. 상대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게 ③안되면 갈등이 쌓인다. 어느 순간 폭발하면 후유증이 크다. 선수·언론·구단·팬이 뒤엎힌 프로에선 ④더하다는 판단이다. 논란과 감정싸움은 애초 맥락을 떠나 끝없이 번진다. 지난주 프로야구가 그랬다. 24일 KIA 윤석민이 롯데 조성환의 머리를 ⑤맞쳤다. 사직 관중들은 흥분했다. 양 팀 감독은 ⑥당황해했다. 논란은 커졌다. 양 팀 팬들의 감정싸움은 아직 진행형

이다. 결국 문제는 야구 그 자체보다는 사람 사이 ⑦감정이 문제다. 규정보다는 예의 혹은 불문율과 관계가 있다. 대표적인 감정다툼 사례들로 야구판의 예의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26일 KIA-LG 전 5회 말이었다. KIA 투수 박경태가 LG 이대형에게 빈볼성 위협구를 던졌다. 구심은 즉시 박경태의 퇴장을 선언했다. 원인은 3회 말 8-1 상황에서 나온 이대형의 도루 때문이었다. KIA는 “불문율을 어겼다. 크게 앞선 상황에서 도루했다”고 했다. 두 팀 팬들은 싸웠다. 과연 맞는 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KIA가 불문율을 잘못 ⑧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⑨대부분의 불문율은 우리 게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만들어졌다. ⑩큰 접수 차로 이기는 팀의 경우 도루하지 말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미 백기를 든 상대를 두 번 죽이지 말라는 거다. 두 번째는 상업적인 이유다. 역전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다.

<띄어쓰기>

③ 안되면 → 안 되면

‘안’은 ‘아니’의 준말로 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상황이므로 띄어 쓴다.

<낱말>

① 유래없는 → 유례없는

‘유래(由來)’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내력’, ‘어떤 것에 기인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유례(類例)’는 ‘같거나 비슷한 예’, ‘이전부터 있던 사례’를 말한다.

⑤ 맞췄다 → 맞혔다

‘정답과 맞춰 보다’처럼 ‘맞추다’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뜻이다. “그는 시험지를 정답과 맞추어 보았다.” ‘어떤 물체에 닿게 한다’는 뜻일 때는 ‘맞히다’이다. “공으로 축구 골대를 맞혔다.”

<표현>

② 야구판에 있어서도 → 야구판에서도

‘~에 있어(서)’ 대신 간결하게 ‘야구판에서도’로 고친다.

④ 더하다는 판단이다 → 더하다

‘판단이다’란 말을 넣어 주체가 없는 문장이 돼 버렸다. ‘판단이다’를 빼는 게 좋겠다.

⑥ 당황해했다 → 당황했다

‘당황하다’가 동사이므로 ‘당황했다’라고 해야 한다.

⑦ 감정이 문제다 → 감정이다

앞쪽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다’는 필요 없는 말이다.

⑧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석했다.

‘전해졌다’라고 표현하면 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뒤의 내용은 모두 글쓴이의 판단으로 이뤄져 있다. ‘해석했다’로 끝내면 신뢰도도 높아지고 문장도 간결해진다.

⑨ 대부분의 불문율은 → 불문율은 대부분

양을 나타내는 ‘대부분’이 뒤쪽에 오는 게 더 자연스럽다.

⑩ 큰 점수 차로 이기는 팀의 경우 → 팀이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을 때 문장의 앞뒤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주어를 앞쪽에 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는다.

(9) 서양의 문화를 읽다 보면...

교양이 뭐냐고? 최근 ①한글로 번역된 책 한 권이 눈길을 끈다. 계몽주의자 빌헬름 폰 훔볼트는 ‘인간의 교양’에서 교양은 ‘별다른 의도 없이 인간 스스로 존재적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내면을 개선하고 고귀하게 가다듬는데 필요한 외적 활동’이라고 밝혔다.

조너선 바이런은 ②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양 내비게이터’를 썼다. 바이런은 ③서문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④소개한 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런은 미국과 영국 의회에 안전으로 부쳐졌던 회의 자료들도 샅샅이 훑었다.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각종 ⑤메뉴얼도 살폈다. 세계사 시간에 ⑥지루해 하며 컷등으로 흘러들거나, 시험을 위해 달달 외운 서양의 문화사가 아니다. ⑦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설픈 교양을 갖게 되는데, 이보다 깊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5장 도심에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성경인쇄, 신·구파의 종교적 대립으로 ⑧풍지박산 난 17세기 독일의 도시,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려낸 17세기의 도시 모습, 파올라 벨기에 여왕이 ⑨군대의 사열을 받는 방식, 18세기 괴테의 ‘베르테르 효과’ 등등이 한데 엮여 있다.

저자는 수많은 ⑩전문가를 인용해 다양한 생각을 소개했다. 또한 역사적인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도 곁들여 ‘교양’이 쉽게 다가오도록 했다. ⑪‘일리아스’

는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에 의해 씌어진 이래 3000년 가까이 인류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특히 일리아스에 대한 평가가 곳곳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다. ⑫이 뿐만 아니라 저자는 곳곳에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고 무겁게 다가오진 않는다. 유희하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양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1만 8500원.

<띄어쓰기>

② 이같은 → 이 같은

‘이같다’는 한 단어가 아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고, ‘같은’은 ‘다르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다. 띄어 써야 한다.

반면 ‘이같이’는 붙여 쓴다. 여기서 ‘같이’는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다. ‘얼름장같이’, ‘눈같이’, ‘소같이’

⑥ 지루해 하며 → 지루해하며

‘지루하다’라는 형용사는 ‘어하다’가 붙어 동사가 된다. 그러므로 ‘지루해하며’라고 붙여 쓴다.

⑫ 이 뿐만 아니라 → 이뿐만 아니라

명사 뒤에 오는 ‘뿐’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만’도 조사이므로 붙인다.

※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형 뒤에 오는 ‘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예)그렸을 뿐만 아니라/좋을 뿐만 아니라)

<맞춤법>

⑧ 풍지박산 → 풍비박산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이라는 뜻을 지닌 말은 ‘풍비박산(風飛雹散)’이다.

<낱말>

① 한글로 → 우리말로

‘한글’은 우리나라 고유 문자를 뜻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우리말’이라고 해야 옳다. 이렇게 혼동해 쓰는 예가 흔한데 ‘문자’와 ‘말’을 구별해 써야 한다.

⑤ 메뉴얼 → 매뉴얼 → 설명서/안내서

외래어 표기법상 ‘매뉴얼’이 바른 표기다.

될 수 있으면 외래어는 순화한 우리말로 쓴다.

<표현>

③ 서문을 통해 → 서문에서

‘~을 통해’를 간결하게 ‘서문에서’로 바꿔 쓴다.

④ 소개한다라는 게 → 소개하는 게

‘-라는’은 ‘라고 하는’이 줄어든 말이다.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직접 인용 형식이 아니므로 ‘소개하는 게’로 바꿔 쓰는 게 적절하다.

⑦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설픈 교양을 갖게 되는데, 이보다 깊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설픈 교양을 갖게 되는데, 저자는 이보다 깊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주어를 서술어와 가깝게 뒤쪽으로 옮겨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⑨ 군대의 사열을 받는 → 군대를 사열하는

‘사열(査閱)’은 부대의 훈련 정도, 사기 등을 살피는 일이다. 여기서 사열을 받아야 할 대상이 사열을 하는 꼴이 됐다. 여왕이 군대의 사열을 받는 게 아니라 여왕이 군대를 사열한다고 해야 말이 된다.

⑩ 전문가를 인용해 →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씬’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전문가를 인용할 수는 없다. ‘말을 인용’하는 것이다.

⑪ ‘일리아스’는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에 의해 씌어진 이래 3000년 가까이 인류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는 3000년 가까이 인류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호메로스에 의해 씌어진’보다 ‘호메로스가 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간결하다.

(10) <먹을거리 범죄 형량 높여 엄벌... 양형기준안 내년 3월부터 시행>

남모 씨(48)는 2005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며 ‘나카마’라고 불리는 중간유통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①다되거나 지난, 이른바 ‘반품(返品)’ 식품을 싼 가격에 사들였다. 남 씨는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유통기한에 별 관심이 없는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이 ‘반품’ 식품을 팔기 시작했다. ②남 씨가 ③경기도 일대 소재 물류창고에서 사들인 폐기용 식품을 보관해 놓은 경기 남양주시의 창고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쳤을 때에는 곧 광이로 뒤범벅이 된 ④초콜렛, 대장균이 들어있는 배즙 등이 무더기로 나왔 다. 남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겉포장에 있는 날짜를 아세톤으로 지운

다음 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⑤남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⑥재판부는 “반품이나 폐기 ⑦대상인줄 알면서도 이를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이나 식품 선택에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중·노년의 남성들을 상대로 속여 파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자들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⑧위해식품 매매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인데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⑨지적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1414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9명(0.6%)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건·식품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해 앞으로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⑩기준안에 따르면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⑪판매해 적발되면 ‘징역 3년 6개월~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징역 5~8년’을 선고한다. 특히 어린이, 유아용 식품인 경우 형량을 가중해 처벌하게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뒤 내년 3월부터 ⑫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띄어쓰기>

① 다되다 → 다 되다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 되다’로 띄어 쓴다.

⑦ 대상인줄 → 대상인 줄

‘~줄’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맞춤법>

④ 초콜렛 → 초콜릿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면 ‘초콜릿’이 바른 표기다.

<표현>

② 남 씨가 경기도 일대 소재 물류창고에서 사들인 폐기용 식품을 보관해

놓은 경기 남양주시의 창고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쳤을 때에는 곰팡이로 뒤범벅이 된 초콜릿, 대장균이 들어있는 배즙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 남 씨의 경기 남양주 시 창고에서는 곰팡이로 뒤범벅이 된 초콜릿, 대장균이 들어있는 배즙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문장이 길고 주술관계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제시한다.

③ 경기도 일대 소재 → 경기도에 있는

‘일대 소재’는 어색한 표현이다. 또 ‘일대’는 ‘일정한 범위의 어느 지역 전부’를 뜻하므로 여기서는 ‘에 있는’이 자연스럽다.

⑤ 남 씨에 대해 → 남 씨에게

남 씨는 사람이므로 ‘에게’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간결하다.

⑥ 재판부는 “반품이나 폐기 대상인줄 알면서도 이를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이나 식품 선택에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중·노년의 남자들을 상대로 속여 파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반품이나 폐기 대상인줄 알면서도 이를 헐값에 사들여 유통기한이나 식품 선택에 상대적으로 부주의한 중·노년의 남자들을 상대로 속여 파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문장의 주어가 ‘재판부’이고 재판부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서술어는 ‘말했다’가 되어야 한다. 또 다음의 직접 인용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⑧ 위해식품 매매 → 위해식품을 매매하거나

뒤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과 대등하게 연결하려면 ‘위해식품을 매매하거나’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⑨ 위해식품 매매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지적이다 → 위해식품 매매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형량은~ 지적을 받아왔다

‘~은 ~지적이다’ 식의 문장은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형량은 ~지적을 받아왔다’로 바꾼다.

⑩ 기준안에 따르면 ~ 신고한다 → 기준안에 따르면~신고하도록 돼 있다.

‘~에 따르면’은 뒷받침해주는 서술어가 없어 부자연스러우므로 ‘기준안에 따르면~ 신고하도록 돼 있다’로 쓴다.

⑪ 판매해→ 판매하다

‘판매하다 적발되면’이 자연스럽다.

⑫ 시행에 들어갈 → 시행할

‘들어갈’은 필요 없는 말이다. ‘시행할 방침이다’로 간결하게 쓴다.

(11) ‘타블로 학력위조 의혹’ 논란 9개월 ... 누리꾼들 왜 그를 몰고 늘어 지나

‘6302명.’ 5일 오후 가수 타블로의 미국 ①스탠포드대 졸업 학력위조설을 주장하는 네이버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에는 6000명이 넘는 ②네티즌이 ③동시 접속했다. 이 카페에 가입한 사람은 ④이날 10만 명을 넘어섰다.

2003년 데뷔한 그룹 ‘에픽하이’의 리더 타블로는 스스로 스탠포드대를 조기 졸업했다고 밝혀 한때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한 네티즌이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학력위조를 둘러싼 진위 공방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타블로가 2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네티즌의 공세는 더욱 ⑤확산 중이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호 측이 8일까지 악성 ⑥루머글을 지우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카페 가입자 수는 일주일 새 1000명 이상 늘었다. 타블로 사건 속에 숨은 군중(群衆)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 의혹제기-반박 오가는 ‘되비우스의 띠’

이 사건은 *ID ‘왓비컴즈’라는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등에 “스탠포드대 졸업자 명단을 확인해보니 타블로 본명인 대니얼 아먼드 리가 없다”는 글을 ⑦올린데서 비롯됐다. 이에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명하던 타블로는 올 4월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내 학력이 거짓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가족까지 모욕했다”며 왓비컴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타블로보다 ⑧왓비컴즈에 동조했다. 이들은 “도올 김용옥은 논문인증번호를 공개해 학력위조설을 한번에 잠재웠다”며 증거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논란은 ‘되비우스의 띠’에 ⑨갇힌 형국이다. 타블로가 의혹에 반박 자료를 제시하면 네티즌들은 매번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타블로 측은 그동안 스탠포드대 재학 시절 성적표와 학교의 공식 확인서 등을 공개했지만 네티즌들은 “조작됐거나 학교 측이 동명이인을 잘못 확인했다”고 ⑩주장한다. 강호 측은 5일 동명이인 소문을 잠재우겠다고 성적표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영문 이름이 적힌 캐나다 시민권증을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시민권이 위조됐다” “스탠포드대 입학허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강호의 표종록 변호사는 “학력위조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여러 차례 제시했다”며 “다만 눈과 귀를 막은 네티즌들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띄어쓰기>

⑦ 올린데서 → 올린 데에서
'데'는 띄어 쓰고, '데에서'로 써 뜻을 명확히 한다.

<맞춤법>

① 스탠포드대 → 스탠퍼드대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고쳐 쓴다.
⑨ 갓힌 → 갠힌
'갠히다'가 맞는 표기이므로 '갠힌'으로 쓴다.

<낱말>

②네티즌 → 누리꾼
외국어나 외래어는 되도록 순화어로 쓴다.
⑥루머 → 소문/댓글
외국어나 외래어는 되도록 순화어로 쓴다.

<표현>

③ 동시 접속했다 → 동시에 접속했다
'동시 접속했다'는 어색하므로 '동시에 접속했다'로 명확히 쓴다.
④ 이날 10만 명을 넘어섰다. → 이날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하루에 10만 명이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로'를 넣어 의미를 명확히 한다.
⑧ 왓비컴즈에 → 왓비컴즈에게
'왓비컴즈'는 사람의 아이디이므로 유정명사에 해당한다. 무정명사에는 '에', 유정명사에는 '에게'로 구별해 쓴다.
⑤ 확산 중이다 → 확산되고 있다
'~ 중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지만, '확산 중이다'는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되고 있다'로 쓴다.
⑩ 주장한다 → 주장했다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앞뒤 문장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이고, 이 문장 역

시 과거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형으로 써야 시제가 맞다.

(12) 출산장려정책 취지는 좋지만...

대구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다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승진 우대와 격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①취지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지자체가 공무원을 독려해 '출산에 앞장선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지만 일부 정책은 공무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②지적이다.

대구 서구는 ③3자녀 이상 양육하거나 임신한 공무원에게 승진심사 때 우대하기로 했다. ④1, 2명 정도가 대상자다. 승진인원이 3~5명일 때는 1명, 6~10명일 때는 2명을 승진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승진인원이 5명일 경우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이 근무평정과 경력에서 2배수인 10위 안에 들면 1명은 무조건 선발한다는 것. 다자녀 공무원은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는 ⑤혜택도 갖는다. 서구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654명 중 31명이다. 서구는 또 이들에게 선진지 견학과 산업시찰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3자녀를 기르고 있는 도시관리과 윤둘남 씨(43·여)는 "승진 ⑥인센티브로 그동안 ⑦자녀를 보육한 힘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는 7월부터 '모성보호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⑧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것. 여성 공무원 220명 중 대상자 25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⑨달서구는 4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⑩35명의 공무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⑪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하고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권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파격적인 다자녀 우대 정책을 ⑫시행 중이다. 셋째 자녀 특별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3월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특별채용증서'도 전달했다. 이 직원에게는 출산축하금(300만 원), 첫돌 격려금(20만 원), 6세 때까지 육아수당(매월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⑬특히 1호봉 추가 승급이라는 인사 혜택도 얻었다. 공단 직원은 216명. 다자녀 우대 정책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20~30대는 ⑭약 40여 명(20%) 정도다. 공단 측은 내년까지는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특히

승진혜택과 같은 문제는 ⑮갈등 소지가 있다.

<낱말>

⑤ 혜택도 갖는다 → 혜택도 받는다

‘가지다’는 ‘소유’의 의미가 아닐 때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여기서 ‘갖는다’는 ‘받는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인센티브 → 장려책/유인책

‘인센티브’는 순화어로 쓴다.

<표현>

① 취지다 → 취지에서다

‘취지에서다’로 써 앞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한다.

② 지적이다 → 지적도 있다/우려도 있다

‘~지적이다’는 ‘~지적도 있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3자녀 이상 양육하거나 임신한 공무원에게 승진심사 때 우대하기로 했다. → 3자녀 이상 양육하거나 셋째를 임신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때 우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임신한’은 의미상 어색하므로 ‘셋째를 임신한’이라고 바꾼다.

‘공무원에게 ~ 우대하다’는 어색하므로 ‘공무원은 ~ 우대한다’로 고쳐 쓴다.

④ 1, 2명 정도가 → 1, 2명이

‘1, 2명’도 정확하지 않은 수인데 ‘정도’가 붙어 더 부정확하다.

⑦ 자녀를 보육한 힘든 기억들이 → 자녀를 기르며 겪은 힘들었던 기억들이

‘자녀를 보육한 힘든 기억들이’는 ‘보육한’과 ‘힘든’이 둘 다 관형어로 ‘기억들이’를 꾸미고 있어 자연스럽지 않다.

⑧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것. →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 문장에 나오는 ‘모성보호 당직제’를 풀이하는 문장이므로 ‘...제외하는 제도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⑨ 달서구는 4월부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 달서구는 4월부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안긴문장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은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으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달서구는'이 전체 주어이고 '시행하고 있다'가 서술어이다.

⑩ 35명의 공무원이 → 공무원 35명이

숫자를 뒤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공무원 35명이'로 쓴다.

⑪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하고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권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주고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가 대상이므로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주고'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권을 지급하는'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⑫ 시행 중이다 → 시행하고 있다

'시행 중이다'는 좀 더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인 '시행하고 있다'로 고친다.

⑬ 특히 1호봉 추가 승급이라는 인사 혜택도 얻었다. → (이 직원에게는) 특히 1호봉 추가 승급이라는 인사 혜택도 보장했다.

이 문장은 앞 문장 '이 직원에게는'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혜택도 보장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⑭ 약 40여 명(20%) 정도다. → 약 40명/40여 명/40명 정도

'약 40여 명(20%) 정도'는 '약'과 '여', '정도', 세 가지 불명확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중복됐다.

⑮ 갈등 소지가 있다 → 갈등의 소지가 있다

조사 '의'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사설/칼럼

(1) 먹으란 말인가 먹지 말란 말인가

낙지 주산지와 유통업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①서울시는 지난 13일 시중에 ②유통중인 낙지, 문어 등의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머리와 내장에서 ③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부 지역에서 잡힌 꽃게의 ④내장에도 다량의 카드뮴이 ⑤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연체류를 요리할 때는 먹물과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지침까지 내놨다. 그런데 식품 관련 주무 관청인 식약청의 입장은 다르다. 낙지의 머리 부분은 전체의 10% 이하이기 ⑥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머리만 따로 떼어 먹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헛갈린다. 인터넷에서도 이 기사가 뜨자 대체 먹으란 말이나, 먹지 말란 ⑦말이나며 항의성 ⑧리플이 ⑨수 없이 달렸다. 서울시 권고대로라면 연체류의 먹물과 내장 부위는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고, 식약청 의견대로라면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물 관련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 과학은 엄정성과 객관성이 ⑩생명인만큼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⑪안된다. 논란이 예상될 경우 관계기관끼리 ⑫협의를 가져 최종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⑬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인다.

<띄어쓰기>

② 유통중인 → 유통 중인

‘중’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유통 중인’은 ‘유통되고 있는’으로 쓰면 더 자연스럽다.

⑨ 수 없이 → 수없이

‘수없이’는 한 단어이다.

⑩ 생명인만큼 → 생명인 만큼

‘만큼’은 체언 뒤에 놓이면 조사로 보아 붙여 쓰고, 용언 뒤에 놓이면 의존명사로 보아 띄어 쓴다. ‘생명인’이 관형어로서 용언 기능을 하므로 그 뒤에 놓인 ‘만큼’은 의존명사로 쓰였다.

⑪ 안된다 → 안 된다

금지의 의미로 쓰인 ‘안 되다’는 띄어 쓴다.

<낱말>

⑧ 리플 → 댓글

우리말 순화어로 바꾼다.

<표현>

① 서울시는 → 서울시가

처음 나오는 정보를 주어로 만들 때에는 주격조사 ‘이/가’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③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뎴이 검출됐다 → ‘카드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

출됐다'나 '카드뭴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카드뭴 자체에는 기준치가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뭴 양'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내장에도 → 내장에서도

'내장에서 ~검출되다'의 호응관계에 주목한다.

⑤ 검출된 → 나온

문장마다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출되다'라는 단어가 앞 문장에 나왔으므로 동어 반복을 피한다.

⑥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준치 이하이므로

한 문장에 '때문에'가 연이어 나오는 것을 피한다. 하지만 이처럼 고쳐도 '때문에'와 '이므로'가 같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다소 어색하기는 하다. 문장을 둘로 나누어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로 바꾸면 자연스럽다.

⑦ 말이나며 → 말이나는

뒷말인 '항의성'을 수식하도록 관형어로 만들어 준다. '말이나며'를 살리려면 '항의성'을 '항의하는'으로 바꾼다.

⑫ 협의를 가져 → 협의하여

'협의를 가지다'보다는 '협의하다'가 더 자연스럽다.

⑬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인다 →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길이다

'공개하는 것'이 추상성을 띠므로 동사인 '줄이다'와 잘 호응하지 않는다. 이때는 '무엇이 무엇이다'의 구조로 만들어야 자연스럽다. '공개해야 소비자의 불안감이 줄어든다'로 할 수도 있다.

(2) 탈산업화에 따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 발전 초기, 농·어업에 종사하던 노동력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조업 분야로 이동한다. 이런 산업화 ①과정에는 제조업의 빠른 성장이 경제 전체의 성장을 ②리드한다. 하지만 산업화가 ③어느정도 진전되면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업종 위주로 재편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한다. 그 결과 ④제조업에서의 고용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노동력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탈산업화다.

우리나라의 탈산업화는 다른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것에 비해 매우 이른 시

점에 훨씬 빠른 속도로 ⑤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주된 이유는 세계화로 급격하게 진전되는 데다 ⑥개발도상국과의 경쟁 때문이다. 특히 우리 이웃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⑦정도의 대규모의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노동집약형·저기술 제조업이 빠르게 비교 우위를 상실했고, 우리 제조업은 고부가가치·고기술 산업으로 재편성되도록 ⑧강요 당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이다. 문제는 탈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이다. 그러자면 ⑨절대로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해 제조업 ⑩못지 않은 빠른 생산성 향상을 이루려면 신규 노동력의 준비가 ⑪요구된다.

<띄어쓰기>

③ 어느정도 →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한 단어가 아니다.

⑧ 강요 당했다 → 강요당했다.

‘당하다’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놓여 그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 주고 ‘피동’의 뜻을 더할 때는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쓴다.

⑩ 못지 않은 → 못지않은

‘못지않다’는 한 단어이다.

<낱말>

② 리드한다 → 이끈다/주도한다

우리말 순화어로 바꾼다.

⑨ 절대로 → 반드시

‘절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할 수 없다’처럼 부정어와 결합해야 자연스럽다.

<표현>

① 과정에는 → 과정에서는

서술어 ‘리드한다’와 호응되게 하려면 ‘에는’이 아닌 ‘에서는’을 써야 한다. ‘시기에는’으로 바꾸면 더 자연스럽다.

④ 제조업에서의 → 제조업의

‘에서의/에의’ 등의 표현은 잘 쓰지 않으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⑤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 이루어지고 있다

간결하게 표현한다.

⑥ 개발도상국과의 경쟁 때문이다 → 개발도상국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말인 '진전되는'이 동사이므로 이어지는 뒷말도 동사 형태로 만들어준다. 이 문장은 다음처럼 고치면 문맥이 더 잘 통한다. '주된 이유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⑦ 정도의 대규모의 → 정도로 대규모의

관형격조사 '의'가 연속으로 나오는 형태는 피하는 게 좋다. 뒷말인 '대규모의'를 '대규모'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산업화'를 수식하는 말이 늘어진다.

⑪ 요구된다 → 필요하다

굳이 피동형을 쓸 필요가 없다.

(3) 좌파 정책과 우파 정책

우리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①웬지 모르게 그것이 좌파적 정책인지 우파적 정책인지 ②따질려고 한다. 그것은 좌우 이데올로기가 정책을 좌우하거나 적어도 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③하지만 그런 좌우 구분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가.

영국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 좌파 ④스타일의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이는 사실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일본 자민당 정권 등 우파들이 많이 썼던 정책이다.

중앙은행 독립은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정책이지만, 유럽에서는 우파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이 독재적 '관치금융'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 중 하나가 된 ⑤듯 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⑥독립이 되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고, 그 성향상 일반 국민의 이해보다는 금융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⑦정책이 된다고 해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좌파가 중앙은행 독립을 반대한다.

물론 좌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좌우 구분이라는 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좌우 구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은 좌파 정책, 저것은 우파 정책, 따라서 이 사람은 좌파, 저 사람은 우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은 ⑧가급적 ⑨지양해야 한다. ⑩하물며 과거에 색깔론으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띄어쓰기>

⑤ 듯 하다 → 듯하다

‘듯하다’는 보조용언이므로 붙여 쓴다. 다만 ‘비가 올 듯도 하다’처럼 ‘듯’ 뒤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띄어 쓴다.

<맞춤법>

① 웬지 → 왓지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가진 관형사로서 뒤의 말과 띄어서 쓴다. ‘왓’은 ‘왜’에 ‘-(이)니지’가 결합하여 굳어진 부사 ‘왓지’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이다. 즉, ‘왓지’의 경우에만 ‘왓’을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웬’을 쓴다.

② 따질려고 → 따지려고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려고’이다. ‘르려고’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낱말>

④ 스타일의 → 성향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쓴다. 여기서는 ‘스타일의’를 생략해도 된다.

⑧ 가급적 → 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풀어 쓴다.

⑨ 지양해야 → 피해야

쉬운 말로 바꾼다.

<표현>

③ 하지만 → 그런데

‘하지만’은 부정의 뜻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러나 이 문장은 부정의 뜻이 아닌 의문의 뜻으로 쓰였다. 이 상황에 적합한 표현은 ‘그런데’이다.

⑥ 독립이 되면 → 독립되면

‘중앙은행이~독립이 되면’은 주어가 연속으로 반복된다. 이 경우 ‘독립’을 강조하는 측면은 있지만 같은 조사가 연속으로 나와 부자연스럽기는 하다.

⑦ 정책이 된다고 해서 → 정책을 쓴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정책을 쓴다’의 주술 관계로 맺어 주어야 자연스럽다.

⑩ 하물며 → 특히

‘하물며’는 부정 표현이나 반어 표현에 잘 어울린다. 굳이 ‘하물며’를 쓰려면 ‘하물며 과거에 색깔론으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처럼 서술어를 부정 표현으로 만들어 준다.

(4) 사투리 단상

①오래 전 시골에서 ②상경한 ③길 모퉁이의 찻집 주인은 경상도 억양이 거세다. 서울 생활에 맞추느라 무던히 애를 쓰지만 쉽지가 않다. 종종 있는 그와 찻집 ④손님들과의 이야기 자리는 자칫 싸우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불쑥불쑥 터지는 사투리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⑤놀림삼아 말투를 바꿔 주려 들면 정색하며 태도를 바꾼다. 그러고는 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사투리’가 아닌 ‘방언’이라고 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사투리가 있는 ⑥찻집은 그가 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엿볼 수 있었다.

군 복무 시절 경상도 출신 후임병이 그랬다. 아무리 교정을 해 줘도 번번이 ‘쌀’이 아닌 ‘살’이다. ⑦낮에는 무덤지만 밤에는 제법 선선해진 ⑧어느날 저녁 ⑨놀림삼아 얼차려도 줘 봤다. 하지만 그때뿐. ⑩별무소득이 없었다. 후임 병의 입에서 ‘쌀’은 어김없이 ‘살’로 되살아났다. 말투의 명에는 정말 벗기가 ⑪힘든 것임에 틀림없나 보다.

남자 직원들만 있는 어느 직장의 해프닝. ⑫팀웍을 다지기 위한 야유회 논의가 한창이었다. 경상도 출신 팀장이 “여승(여성)도 데려가자”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누구의 공이었는지 야유회에 비구니가 환히 웃고 나타났단다. 혀에 익은 말 버릇이야 쉽사리 버릴 수가 있을까. 군 시절 뿔하러 얼차려까지 줬을까. 지금도 여전히 ⑬‘살’일텐데.

<띄어쓰기>

① 오래 전 → 오래전

‘오래전’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③ 길 모퉁이 → 길모퉁이

‘길모퉁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⑤ ⑨ 놀림삼아 → 놀림 삼아

‘삼다’는 별개의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⑧ 어느날 → 어느 날

‘어느’와 ‘날’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⑬ ‘살’일텐데 → ‘살’일 텐데.

‘텐데’는 ‘터인데’를 줄여 쓴 형태다. ‘-르(어미)’ 뒤에 ‘터(의존명사)+-이-(서술격조사+ㄴ데(어미))’가 이어진 구조다. 따라서 ‘텐데’는 띄어 쓴다. ‘좋은 텐데’, ‘할 텐데’도 마찬가지로 띄어 쓴다.

<낱말>

⑫ 팀워크를 → 팀워크를 → 결속(력)을

‘팀워크’가 바른 표기이다. ‘결속’ 또는 ‘결속력’으로 바꿔 표현해도 좋다.

<표현>

② 상경한 → 서울로 온

‘상경’은 ‘서울로 올라온다’는 뜻인데, 이는 서울을 높이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다. 가능하면 ‘서울로 오다/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④ 손님들과의 → 손님들의

앞쪽에 ‘그와’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손님들과의’에서 ‘과’는 필요 없는 말이다. ‘과’를 빼는 게 자연스럽다.

⑥ 찾집은 그가 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엿볼 수 있었다 → 찾집에서는 그가 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엿볼 수 있었다

‘찾집은’과 ‘엿볼 수 있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찾집에서는’이 돼야 한다.

⑦ 낮에는 무덤지만 밤에는 제법 선선히진 → 낮에는 무덤지만 밤에는 제법 선선했

‘무덤다’는 형용사, ‘선선히지다’는 동사이므로 앞뒤가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 ‘선선히진’을 ‘선선했’으로 고쳐 쓴다.

⑩ 별무소득이 없었다 → 별무소득이었다

‘별무소득’이 ‘별로 얻는 바가 없음’이라는 뜻이므로 이어지는 ‘없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⑪ 힘든 것임에 틀림없나 → 힘든 것인가

간결하게 고쳐 쓴다.

(5) 공기업 선진화 어디 갔나

감사원이 최근 공기업 선진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①간단히 요약하면 '한심한 돈 잔치'다. 132개 공기업이 인건비·②복리후생비조로 무려 6109억 원을 ③부당 집행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지출 명목이 태반이고 ④노조와 이면계약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⑤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호와 몸짓은 그저 시늉에 불과했다. 이러니 '신의 직장', '철밥통'이란 비아냥을 받는 게 아닌가.

⑥공기업 선진화는 현 정부가 애초의 공약 사항인 민영화 작업의 ⑦대안격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기득권 보호 및 유지라는 공기업 집단의 이기주의에 밀린 느낌이 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공기업의 변화와 개혁을 겨누는 정책들은 겉돌고만 있으니 안타깝다. ⑧공기업 경영평가만 해도 후퇴한 인상이 짙고, 성과연봉제도 1~2급 간부에게만 적용한다니 사실상 유야무야된 꼴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세금 축내기에 혈안이 됐으니 한심한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재정 악화를 부르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⑨돌려진다. 국회 예산처 보고서만 보더라도 22개 공기업 부채가 지난 6년간 156.42%나 늘어났다. 공기업 부채가 머지않아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경고가 괜한 게 아니다. ⑩그런데도 공기업 부채는 국가가 알아서 보전해 준다는 공기업들의 안이함과 불감증이 여전하니 위기의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⑪집권 후반기 공기업 선진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감독 당국과 상급 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을 그냥 넘겨선 안 될 이유이다. 말뿐인 선진화가 안 되도록 ⑫실효성있는 처벌과 상시 감독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띄어쓰기>

② 복리후생비조로 → 복리후생비 조로

'조'는 '어떤 명목이나 조건'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⑦ 대안격으로 → 대안 격으로

'격'이 '자격'을 뜻하는 의존명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쓴다.

⑫ 실효성있는 → 실효성 있는

'실효성'과 '있다'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표현>

① 간단히 요약하면 → 간단히 설명하면/요약하면

‘요약’은 ‘간단히 하는 것’이다.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쓰는 게 좋겠다.

③ 부당 → 부당하게/부당히

‘부당’이 명사이므로 ‘집행하다’를 수식하는 구조는 어색하다. 부사어 ‘부당하게’ 또는 ‘부당히’로 바뀌야 자연스럽다.

④ 노조와 → 노조와의/노조와 하는

‘노조와’가 꾸며 주는 말이 없는 상태여서 어색한 표현이 됐다.

⑤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여기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는 의미가 되므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 ‘방만한 경영’과 호응하는 말을 넣는다.

⑥ 공기업 선진화는 현 정부가 애초의 공약 사항인 민영화 작업의 대안격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 공기업 선진화는 현 정부가 애초에 공약 사항으로 내놓았던 민영화 작업의 대안 격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애초의 공약 사항인 민영화 작업의’가 계속 관형형으로 이어져 매끄럽지 않다. 이를 피해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⑧ 공기업 경영평가만 해도 후퇴한 인상이 짙고, 성과연봉제도 1~2급 간부에게만 적용한다니 사실상 유야무야된 꼴이다 → 공기업 경영평가만 해도 후퇴한 인상이 짙다. 성과연봉제는 1~2급 간부에게만 적용한다니 사실상 유야무야된 꼴이다

‘짙고, ~꼴이다’ 구조여서 앞뒤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⑨ 돌려진다 → 돌아간다

‘돌려진다’가 피동형이어서 자연스럽지 않다. 앞쪽의 ‘부르고’가 능동형이므로 호응되도록 고쳐 쓴다.

⑩ 그런데도 공기업 부채는 국가가 알아서 보전해 준다는 공기업들의 안이함과 불감증이 여전하니 위기의 상황인 것이다. → 그런데도 공기업들은 공기업 부채는 국가가 알아서 보전해 줄 거라고 믿는 듯하다. 이렇듯 공기업들의 안이함과 불감증이 여전하니 위기의 상황인 것이다

‘보전해 준다는 공기업들의’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됐다. ‘보전해 준다고 생각하는 공기업들’이어야 논리가 맞는다.

⑪ 집권 후반기 → 집권 후반기에는

조사 ‘에는’이 빠져서 어색해졌다. ‘에는’을 붙인다.

(6) 노벨상 수상한 중국, 정치적 성숙 보여줘야

역대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 중 ①'반체제'로 불리우는 사람은 ②5~6명 정도를 꼽는다. 독일의 ③칼 폰 오시에스키(1935), 옛 소련의 안드레이 사하로프(1975),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1983), 미얀마의 아웅 산 수치(1991),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1993), 이란의 시린 에바디(2003) 등.

이들은 나치 독일의 재(再)무장 폭로, 옛 소련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 공산주의 체제하 폴란드의 노동자 권리 쟁취, 미얀마 장기 군부 독재 타도, ④남아공의 흑인 및 이란의 여성 인권 회복 등에 헌신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에게 상을 주어 인류가 한 걸음 진보하고 정의가 확산되도록 했다. 노벨상은 분명 인류 문화의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

올해는 중국의 반체제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 박사가 중국 국적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지금 노벨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노벨위 위원이 노르웨이 국회에서 선정된다는 이유로 중국은 주중 노르웨이 대사를 밤에 불러 항의하고, 예정된 장관급 회담도 중단했다. 노벨위가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평화상을 줬다고 해서 당사국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

⑤중국과 일본간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놓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하는 강수로 일본을 굴복시킨 것처럼 중국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⑥대(對) 노르웨이 강공 외교는 거침이 없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산 연어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한 ⑦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올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지금 이 FTA 협상이 좌초 위기에 몰려있다. 노벨위가 노르웨이 정부에 좌지우지했다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토르비에른 야글란 노벨위 위원장은 수상자 발표 직후 “중국이 급부상해 (다들 할 말을) 못할 때 우리라도 나서서 말해야 한다”고 기개를 드러냈다.

중국 내에서도 류샤오보의 수상을 계기로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⑧잇따 공개서한 형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14일 중국 내 반체제 인사 등 120여 명이 발표한 정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한에는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다른 보편적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⑨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높은 경제 성장으로 올해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기폭제가 된 측면도 있다. 세계 질서의 수혜자이기도 한 중국이 입맛 따라 ‘보편적 가치’를 감탄고토(甘呑苦吐)해서는 ⑩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벨위는 “중국의 새로운 위상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고 충고했다. 이 제는 중국이 정치적으로도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다.

<띄어쓰기>

- ⑥ 대(對) 노르웨이 → 대(對)노르웨이
‘대(對)노르웨이’로 붙여 쓴다. ‘대(對)’는 접두사이다.
- ⑩ 안되는 → 안 되는
‘금지’를 나타내는 ‘안 되다’는 띄어 쓴다.

<맞춤법>

- ⑧ 잇딄 → 잇단/잇따른
‘잇달다’의 관형형 ‘잇단’이나 ‘잇따르다’의 관형형 ‘잇따른’으로 써야 한다.
- ③ 칼 폰 오시에스키 → 카를 폰 오시에츠키
독일인이므로 독일어 표기법에 맞게 ‘Karl’은 ‘카를’로 쓴다.

<표현>

- ① 반체제’로 불리우는 →반체제 인사로 불리는
‘반체제’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인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불리우는’은 ‘불리는’으로 쓴다. ‘불리우다’는 이중피동으로 피동이 두 번 겹친 형태다.
- ② 5~6명 정도 → 6명
‘5~6명’도 정확하지 않은데 ‘정도’까지 붙여 쓰면 더 부정확해진다. 뒤 문장들을 보면 6명이 소개되므로 ‘6명’으로 쓰는 것이 정확하다.
- ④ 남아공의 흑인 및 이란의 여성 인권 회복 → 남아공의 흑인 인권 회복, 이란의 여성 인권 회복
인물 각각의 설명을 독립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권 회복’이 공통된다고 생략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문장이 딱딱해졌다.
- ⑤ 중국과 일본간에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놓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일으켰을 때
‘갈등을 일으킨’ 주체가 중국과 일본이므로 이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또 ‘분쟁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영유권을 놓고 분쟁이나 갈등을 일으키므로 ‘분쟁’과 ‘갈등’ 중 하나만 쓴다.

⑦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명사가 지나치게 나열되어 어색하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로 쓰면 간결하면서 자연스럽다.

⑨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높은 경제 성장으로 올해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높은 경제 성장으로 올해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설명이므로 '중국이'보다는 '중국은'으로 쓴다.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는 '은'이다

또한 서술어는 '중국은'과 호응하게 '~것으로 전망된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7) 난맥의 뉴타운 사업 ①바람직 안해

지난주 서울 상왕십리 일대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② 보상 마찰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8년 만에야 첫 삽을 떴다. ② 다른 구역의 사업추진 일정은 아무도 모른다. 서울시가 도시환경과 주거생활권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지정한 뉴타운 35개 지구, 305개 구역 중 206개 구역은 착공도 못했다. 경기도는 138개 구역 중 104개 구역이 감정평가 절차도 마치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탓으로 뉴타운 구역 안에 철거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집이 많다. 서울에만 재개발 주택의 17%에 해당하는 ④ 4200여 채의 주택이 버려진 채로 있다. 인근 주민은 빈집에 드나드는 일부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 발생 가능성을 걱정한다.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도 재개발 구역의 빈집에서 일어났다.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1968년부터 30여 년간 지속된 ⑤ 강남 위주 개발로 강남북 격차가 커지자 ⑥ 강북 노후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나지 않아 걱정이 현실로 바뀌었다. 뉴타운 구역에서 철거주택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 수가 훨씬 적고 소형주택 수가 줄어들어 전세금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뉴타운 사업을 무난하게 ⑦ 추진시키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성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 불패(不敗) 신화 아래 '뉴타운 투기'가 빚어졌다. 2008년 총선 때 서울 48개 선거구 중 26곳에서 뉴타운 개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가 하면 일부 주민은 1억~3억 원의 개발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오래 살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다. 주민의 뉴타운 재정착률이 30~40%에 불과하다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⑧과거와 같은 부동산 값의 지속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뉴타운 사업도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뉴타운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경기 부천시의 3개 뉴타운 예정지구에서는 상당수 주민이 뉴타운 개발방식에 반대하는 바람에 부천시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기존 지구 중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불확실한 곳은 뉴타운 ⑨간판을 계속 부치고 있을지 ⑩재고해야 한다. 수도권을 ⑪비슷 비슷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개발방식은 도시 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띄어쓰기>

⑪ 비슷 비슷한 → 비슷비슷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⑨ 간판을 계속 부치고 → 간판을 계속 붙이고
'부치고'는 '붙이고'가 맞다.

<낱말>

⑩ 재고해야 → 다시 생각해야
쉬운 우리말이 있으므로 '다시 생각해야'로 쓴다.

<표현>

① 바람직 안해 → 바람직하지 않아
과도하게 축약해 문법에 어긋나버린 형태다. '바람직안하다'라는 말은 없으므로 문법에 맞게 적는다.

② 보상 마찰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 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마찰로 착공이 지연되다'는 의미가 부자연스럽다.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다'로 쓴다.

③ 다른 구역의 사업추진 일정은 아무도 모른다 → 다른 구역의 사업추진 일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문맥으로 보면 몇 개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사업추진 일정을 모르는 것

이 아니라 일정이 진행될지 되지 않을지 모르는 것이므로 '어떻게 될지'를 넣어 준다.

④ 4200여 채의 주택이 → 4200여 채가

앞 구절 '재개발 주택의 17%에 해당하는'에 '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주택'은 삭제한다.

⑤ 강남 위주 개발로 → 강남 위주의 개발로

명사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강남 위주의 개발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강북 노후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 강북 노후 거주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

명사가 지나치게 나열되어 어색하다. '강북 노후 거주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⑦ 추진시키려면 → 추진하려면

'추진하게 만들려면'의 뜻이 아니므로 '-시키다'가 필요 없다. '추진하려면'으로 충분하다.

⑧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값의 지속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므로 누가 전망했는지를 밝혀준다. 중간에 명사로 연결된 부분 '부동산 값의 지속 상승'은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큰 변화에 대비해야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차기 지도자로 결정하면서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선언했다. ①2012년 예정된 지도부 교체를 안정되게 이끌면서, 30년 지속해온 성장 정책을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주요 2개국(G2) 지위에 오른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경제노선 전환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서둘러 세워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8일 끝난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을 차기 ②리더 몫인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승계할 5세대 최고지도자로 예고했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의 중심을 개인의 소득 증대, 이른바 민부(民富)로 전환하는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③공업과 수출 위주 성장 정책에서 계층과 지역의 격차 해소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포용성 성장' 정책은 ④계층·지역 갈등과 불만을 완화,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공산당은 과감하면서도 ⑤꾸준한 정치 개혁을 다짐, 제한된 민주화와 기본권 확대 등의 '선치(善治)'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시진핑이 이끌 차기 지도부가 불안 요인을 털고 안정과 개혁을 추진해 '조화로운 사회'로 ⑥첫 발을 ⑦내딛을지 주목된다.

우리는 중국의 큰 틀의 변화에 누구보다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체제 안정과 내륙 개발, 내수 확대에 치중하는 데 따른 영향부터 ⑧잘 헤아릴 일이다. 특히 주변 정세가 더욱 안정되기를 바라는 중국이 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끄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명제'와 마주했다는 거인의 행보를 가늠하고 ⑨대비하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띄어쓰기>

⑥ 첫 발 → 첫발

'첫발'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⑦ 내딛을지 → 내디딜지

'내디디다,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의 준말인 '내딛다,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 등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낱말>

② 리더 → 지도자

우리말 '지도자'로 고쳐 쓴다.

<표현>

① 2012년 예정된 → 2012년으로 예정된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 '으로'를 넣어 '2012년으로 예정된'이라고 쓴다.

③ 공업과 수출 위주 성장 정책에서 계층과 지역의 격차 해소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으로 → 공업과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안건문장 '공업과 수출 위주 성장 정책에서 계층과 지역의 격차 해소와 첨

단 전략산업 육성으로'는 조사와 단어를 생략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업과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로 의미를 명확히 쓴다.

④ 계층·지역 갈등과 불만을 완화, → 계층과 지역의 갈등이나 불만을 완화하여

문장부호 가운데점과 쉼표를 써 문장이 어색하다. 문장부호를 없애고 '계층과 지역의 갈등이나 불만을 완화하여'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꾸준한 정치 개혁을 다짐, → 꾸준한 정치 개혁을 다짐함으로써
문장부호 쉼표를 풀어 써 뒤 문장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밝혔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⑧ 잘 해야 될 일이다 → 잘 해야 해야 한다

'~일이다'는 주어가 없어 부자연스러우므로 '-해야 한다'로 고쳐 쓴다.

⑨ 대비하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 대비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소홀하다'는 자동사이므로 '대비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로 쓴다. '대비하는 것을'을 살리려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로 써야 문법에 맞다.

4. 인터뷰

(1) 연극 '햄릿' 들고 한국 찾은 독일 연출가 오스터마이어

“연출가는 세상을 관찰한 뒤 새로운 것을 ①만들어 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②기반한 내 작품이 실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연출 ③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대나 음악 같은 데 신경 쓰기보다 배우들과 얘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일찌감치 '차세대 대표주자'로 꼽혀온 독일의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42)가 연극 '햄릿'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오스터마이어에 따르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와 드라마다. 그에 따르면 무대나 음악은 개인적 취향이라고 보면 된다. 그는 이제 연극 ④연출에 있어 대가로 불린다.

— 왜 '햄릿'인가?

“고전 재해석은 힘든 작업이다. 언어, 장소,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다. '햄릿'은 일생에 한 번은 해야 할 작업이었다. 그래서 다른 연출을 ⑤오랜동

안 지켜봤다. 마음에 드는 연출이 없었다. 연출에 일종의 허영심이 투사돼 있었다. ‘햄릿’은 암흑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뚜렷한 ⑥1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러다 보니 연출가가 자신을 그 인물에 투영하더라.”

— 햄릿을 제외한 나머지 배역은 한 배우가 두 역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 돈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닌 ⑦듯 싶은데 의도가 있나?

“내 극단에 ⑧25명의 배우가 있다. 다들 배역 따내길 ⑨원하는 지라 한 배우가 두 가지 역을 한다고 말하긴 쉽지 않다. 더구나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에 배우들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이기도 하다. 미쳐 버린 햄릿이 마구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을 참조해 두 역을 한 배우에게 맡겼다.”

— 당신의 작품을 볼 관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너무 크게 기대하진 말라는 거다.(웃음) 연극이란 결국 ⑩엔터테인먼트니까.”

<띄어쓰기>

⑦ 듯 싶은데 → 듯싶은데

‘듯싶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⑨ 원하는 지라 → 원하는지라

‘는지’가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⑤ 오랜동안 → 오랫동안

‘오랫동안’이 바른 표기이다.

<낱말>

⑩ 엔터테인먼트니까 → 오락이니까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바꿔 쓴다.

<표현>

① 만들어 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 만들어 내야 한다

의미가 통하도록 간결하게 고친다.

② 기반한 → 기반을 둔/기초한

‘기반하다’는 말은 없다. ‘기반을 둔’ 또는 ‘기초한’으로 표현한다.

기반(基盤)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를 뜻한다. ‘기반을 닦

다', '기반을 다지다', '기반을 두고', '경제적 기반 위에'처럼 쓰인다.

③ 방식에 있어서는 → 방식은 / ④ 연출에 있어 → 연출의
'~에 있어(서는)'를 더 간결한 표현으로 고쳐 쓴다.

⑥ 1명의 인물이 → 인물 한 명이 / ⑧ 25명의 배우가 → 배우가 25명
숫자를 뒤쪽에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2) “통계청, 北 통계시스템 구축… 위성 통해 농업생산량도 파악”

통계청이 북한의 인구와 농업 생산량 같은 북한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 북한의 농업생산량을 우리 정부가 직접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통일세 등 ①통일비용 관련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②통일세 산출의 근거 파악을 위해서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가 ③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통계는 오랜 기간 자료가 쌓여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며 “이미 독일 정부에 통일 전후의 통계시스템 통합 과정에 대해 ④자문을 요청했으며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도 북한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북한 경제 통계가 계획경제라는 특성 때문에 남한의 통계와 비교하기 ⑤어려운데다 북한이 통계 생산 체제도 제대로 ⑥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우선 유엔 등 국제기구에 한국의 통계 전문가를 파견해 북한에 통계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정원과 통일부와 협조해 ⑦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북한 관련 각종 통계를 한국 통계 산출 방식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북한의 지역별 농업 생산량을 산출해 내는 등 통계청이 직접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청장은 “북한도 국제 사회와 비교 가능한 통계 시스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객관적인 통계는 정치성이 약한 만큼 통계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띄어쓰기>

① 통일비용 → 통일 비용

합성어가 아니고 '통일'과 '비용'이 각각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⑤ 어려운데다 → 어려운 데다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며, '데에'의 준말 형태이므로 띄어 쓴다.

<낱말>

④ 자문을 요청했으며 → 자문했으며

'자문하다'는 '의견을 묻는다'는 뜻이므로 '자문했으며'로 쓰는 것이 어법에 맞다.

<표현>

② 통일세 산출의 근거 파악을 위해서도 → 통일세 산출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명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어색하므로 '통일세 산출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시 내용이 모호하다. '이같이'가 가리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⑥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갖춰져 있지'의 주어는 '북한'이므로 '갖추고 있지'로 쓰는 것이 문맥에 맞다.

⑦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 지금까지 확보한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보다는 '지금까지 확보한'이 간결한 표현이다. 현재형 '-고 있는'은 '-는/니'으로 바꿔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3) "실시간 재난방지 시스템 갖추겠다"

김우영 은평구청장(41·민주당)에게 8월은 ①뼈아픈 달이자 좋은 교훈을 얻기에 좋았던 기간이었다. 지난달 10일 태풍 '덴무'의 영향으로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일대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 야영객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단 3시간 만에 100mm 이상의 비가 은평구에만 쏟아졌다. 김 구청장은 곧바로 현장에 달려갔다. 동네 주민들은 물이 방으로 흘러들어오는데도 공무원들이 제때 ②응대하지 못했다고 구청장에게 항의했다.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생기자 그는 곧바로 구 자체 재난방지시스템을 갖추

것을 지시했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앙 본부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게 김 구청장의 주장이다.

“계곡이나 하천, 산이 많은 ③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요 위험 지역에 폐쇄 회로(CC)TV를 달아 실시간으로 재난재해를 감시하고 방송장비를 통해 ④싸이렌을 울리는 등 신속하게 재난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또 침수 가구별 1주택 1공무원으로 담당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은평구는 자연재해가 낮다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다. 이유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은평구에는 11만9600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김 구청장이 꼽는 은평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은평구 ⑤대부분의 주민이 ⑥여가 생활을 은평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나가 한다는 것. 그는 “은평구에 이렇다 할 상권이 ⑦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김 구청장은 구과발역 인근 진관동 일대 5만 425m²(약 1만5000평)에 은평뉴타운 대표 상업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간에는 쇼핑몰과 복합 상영 영화관 등 ⑧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비롯해 레저·의료 단지, 오피스텔 등 주거·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를 대표하는 변화가인 연신내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대식 건물과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연신내를 ‘문화의 공간’으로 바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자립도를 키워야 하는데, ⑨그러자면 상권 개발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서울시 25개구 중 ⑩가장 젊은 최연소 구청장이다.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른 구청장들처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할 ⑪법 하지만 그는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는 “튀는 평가를 받을까봐 당분간 일만 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띄어쓰기>

⑪ 법 하지만 → 법하지만
한 단어이므로 ‘법하지만’으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⑨ 그러자면 상권 개발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 그러자면 상권 개발이 꼭 필요하지 않으나
‘필요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보조용언을 ‘않으나’로 써야 한다.

<낱말>

② 응대하지 → 대응하지

‘응대’는 ‘부름이나 물음 또는 요구 따위에 응하여 상대한다’는 뜻이므로 여기서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한다’는 뜻의 ‘대응’이 적절하다.

④ 사이렌 → 사이렌 → 경보음/신호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사이렌’으로 표기한다. 또한 적절한 우리말이 있을 때는 우리말을 쓴다.

⑧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비롯해 레저·의료 단지 → 오락시설을 비롯해 여가·의료 단지

엔터테인먼트 → 오락, 레저 → 여가 등 적절한 우리말을 쓴다.

<표현>

① 뼈아픈 달이자 좋은 교훈을 얻기에 좋았던 기간 → 뼈아픈 달이자 교훈을 얻은 기간

‘교훈’의 의미 안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좋은 교훈’은 의미가 중복된다. 뒤의 서술어 ‘좋았던’과도 겹친다.

③ 우리 구 자체적으로 →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서술어 ‘감시하고’ ‘알리는’의 주체가 ‘우리 구’이므로 조사를 써주어야 한다. ‘우리 구는 ~’ 혹은 ‘우리 구가 ~’

⑤ 대부분의 주민이 → 주민 대부분이

‘대부분의 주민이’는 ‘주민 대부분이’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여가 생활을 은평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나가 한다는 것 → 은평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가생활을 한다는 것

‘나가’는 군더더기다. ‘다른 지역에서 여가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간결하게 써준다.

⑦ 없었기 때문 → 없기 때문

현재 시제인 ‘없기 때문’이라고 써야 자연스럽다. 뒤 문장을 보면 아직 상권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⑩ 가장 젊은 최연소 구청장이다 → 최연소 구청장이다/가장 젊은 구청장이다

‘가장 젊은 최연소’는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 ‘최연소’가 가장 젊다는 뜻이므로 둘 중 하나만 쓴다.

5. 르포

(1) 금값 배추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김치 대란에 모두가 한숨…포장김치는 내놓자마자 동나
주부들 “올겨울 김장은 할 수 있을까” 걱정

“①한참 비쌀 때보다 값이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담스럽네요.”

1일 저녁 서울 상암동 대형 ②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살펴보던 주부 이금례(45) 씨는 도로 배추를 내려놓고 말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김장철이 다가오기 전에 채소 가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해야 ③할 텐데 걱정”이라며 ④한숨이 나왔다. 이날 ⑤이 곳에서 배추는 ⑥포기 당 6450원에 팔리고 있었다.

⑦지난 주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원을 훌쩍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내리기는 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가격이다.

이 씨는 포장 김치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포장 김치 진열대에는 깍두기 몇 봉지가 듬성듬성 놓여 ⑧있었을 뿐 배추김치는 단 한 봉지도 찾을 수 없었다.

매장 직원은 “배추김치는 가져다 놓는 족족 손님들이 가져가 버려 남은 것은 ⑨깍두기뿐이 없다”며 “배추가 비싸니 포장 김치 쪽으로 손님이 몰린다”고 말했다.

올해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상기온 때문이다. 한여름 불볕더위가 ⑩끝나자마자 비가 쏟아져 배추가 녹아버렸고 그나마 수확한 배추도 예년보다 크기가 작고 속이 비어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

이씨는 ⑪배추는커녕 깍두기 몇 봉지만 사 들고 매장 문을 나섰다.

<띄어쓰기>

③ 할텐데 → 할 텐데

‘텐데’는 ‘터인데’의 준말이고, 이때의 ‘터’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이 곳 → 이곳

‘이곳’은 한 단어이다.

⑥ 포기 당 → 포기당

‘당(當)’은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⑦ 지난 주 → 지난주

‘지난주’는 한 단어이다.

⑩ 끝나자 마자 → 끝나자마자

‘-자마자’는 연결어미이다.

<낱말>

① 한참 → 한창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고,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를 뜻한다.

② 마트 → 상점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표현>

④ 한숨이 나왔다 → 한숨을 내쉬었다

주어가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술어는 타동사 형태로 쓴다.

⑧ 있었을 → 있을

시점은 과거지만 과거 속의 현재를 뜻하므로 현재형을 쓴다. 문말에 놓인 ‘없었다’가 과거 시점임을 드러낸다.

⑨ 깎두기뿐이 없다 → 깎두기밖에 없다

‘~뿐이다’는 가능하지만 ‘~뿐이 없다’는 불가능하다. ‘없다’를 살리려면 ‘~밖에 없다’로 한다.

⑪ 배추는커녕 → 배추 대신

‘~커녕’은 뒷말도 부정할 때 쓰므로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2) 견본 주택 속사정 들어 보니

“수익률 보장하는 오피스텔은 계약, 아파트는 구경만 하자”

“오래 앉아 있었더니 ①저린다. 아파트나 둘러보고 오자.”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에 ②위치하고 있는 아이파크 오피스텔 견본주택 앞. 계약을 마친 50대 여성들은 아파트는 ③비전이 없다는 듯 몇 마디 던지고 승용차에 올랐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견본 주택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견본 주택이 ④거의 대부분 미어터질 듯한 상태다. ⑤신별내 퇴

계원 어울림에는 이틀간 5000여 명이 몰렸고, 사흘간 2만여 명이 찾은 수원 장안 STX칸의 견본 주택은 북새통을 이뤘다. 일각에서는 분양시장이 풀리는 것 ⑥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 아이파크 오피스텔 견본 주택에는 뭔가를 ⑦카피한 40, 50대 여성 4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⑧귀동냥 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는 얘기를 ⑨주고 받는 이들도 있었다. 계약을 마치고 세무 상담을 받는 사람도 10여 명이나 됐다. 회사 담당자는 “견본 주택을 처음 열었을 때 하루 3000~4000 명이 방문했다. 이제 계약하려는 사람들만 찾다 보니 한산하다”고 말했다.

계약을 마친 50대 여성은 “견본 주택이 봄비는 게 대수냐, 계약을 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파트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온다”며 “견본 주택에 줄을 섰다고 부동산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번 사람이다. ⑩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⑪활황세로 전환을 예측하지만 거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자 중에는 간혹 ⑫자식의 살 곳을 ⑬구하러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⑭투자에 다름 아니라는 게 회사 담당자들의 해석이다. 오피스텔 분양이 달아오르는 것과 달리 아파트 분양시장은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띄어쓰기>

⑧ 귀동냥 만큼 → 귀동냥만큼

명사 뒤에 오는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동사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⑨ 주고 받는 → 주고받는

‘주고받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맞춤법>

① 저린다 → 저리다

‘저리다’가 바른 표기이다.

‘슬프다’, ‘아프다’처럼 형용사는 ‘ㄴ다’ 형태로 활용하지 않는다. ‘저리다’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는 뜻을 지닌 형용사다.

<낱말>

③ 비전 → 비전 → 이상/전망

‘비전’이 바른 외래어 표기이다. 문맥에 따라 ‘이상’이나 ‘전망’으로 바꿔 쓰도록 한다.

⑦ 카피한 → 복사한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꿔 쓴다.

<표현>

② 위치하고 있는 → 있는

‘위치하다’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다’는 뜻이다. ‘있다’와 뜻이 겹친다. 될 수 있으면 더 쉬운 ‘있다’를 쓰는 게 좋겠다.

④ 거의 대부분 → 거의/대부분

‘거의’와 ‘대부분’은 비슷한 말이다.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써도 된다.

⑤ 신별내 퇴계원 어울림에는 이틀간 5000여 명이 몰렸고, 사흘간 2만여 명이 찾은 수원 장안 STX칸의 견본 주택은 북새통을 이뤘다 → 신별내 퇴계원 어울림에는 이틀간 5000여 명이 몰렸고, 수원 장안 STX칸의 견본 주택에는 사흘간 2만여 명이 찾았다

앞뒤 호응이 안 돼 어색한 문장이 됐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쳐 쓴다.

⑥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관형형 ‘아니냐는’에 이어 바로 ‘조심스러운’이라는 관형형이 이어져 자연스럽지 않다. ‘조심스러운’을 다른 형태로 바꿔 쓴다.

⑩ 각 지역별로 → 지역별로

‘각’과 ‘별’은 의미상 중복된다. ‘각’을 빼도 된다.

⑪ 활황세로 전환을 예측하지만 → 활황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지만/활황세로 바뀐다고 예측하지만

문맥상 ‘활황세로’가 수식하는 말은 ‘전환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색한 표현이 됐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고쳐 쓴다.

⑫ 자식의 → 자식이

조사 ‘의’ 대신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이’가 와야 자연스럽다.

⑬ 구하려 → 구하러

어미 ‘-려’를 써야 자연스럽다. ‘-러’는 목적을, ‘-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⑭ 투자에 다름 아니라는 게 → 투자나 다름없다는 게/투자에 가깝다는

게

‘다르다’는 말을 사용할 때 ‘~에 다르다’고 하지 않는다. ‘~와(과) 다르다’고 한다. ‘~과 다르지 않다’ 혹은 ‘~이나 다름없다’가 자연스럽다.

(3) 평생학습축제 성공 ‘자원봉사자의 힘’

11일 오후 4시경 대구 동구 검사동 동촌유원지. 문화·교육 홍보체험관, 국제현대미술전이 열리는 주전시관 등 ①600여개 부스에는 ②수천여 명의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들 사이로 ③핑크색 티셔츠를 입은 행사 요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행사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이다. 대학생부터 노인들까지 360여 명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관람객들의 손발이 됐다.

대구 동구에서 열린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11일 막을 내렸다. 동구청에 따르면 ④8~11일까지 축제기간 전국에서 17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행복의 반올림 희망의 어울림 2010 대구 동구’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20개국의 국제학습도시, 76개 평생학습도시, 16개 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 전국 51개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 같은 성공에는 지역민들의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했다. ⑤행사장 안내, 통역, 환경정리 등 ⑥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⑦특히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⑧대구를 홍보하는 일은 물론 원활한 축제 진행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축제 기간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던 프로그램인 ‘뗏목 금호강 탐사’, ‘동행 섣다리(부교)’ 등에도 봉사자들의 손길이 빛났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이번 봉사가 배움의 기회였다고 했다. 대구대 무역학과 4학년인 권재구 씨(27)는 “취업을 앞두고 ⑨중국어 통역 봉사를 위해 참여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색다른 체험이었고 오히려 많은 것은 배웠다”고 말했다. 국제도시 참여로 전 세계 문화를 ⑩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류연희 씨(29·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팔, 코스타리카 등 평소 접할 수 없는 ⑪나라 문화를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⑫통역관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활짝 웃었다.

<띄어쓰기>

① ‘600여개’ → ‘600여 개’

‘-여’는 ‘그 수를 넘는다’는 뜻을 지닌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고, ‘개’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곳은 일 → 곳은일

‘곳은일’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낱말>

③ 핑크색 → 분홍/분홍색

우리말 색깔 이름 ‘분홍’으로 쓴다.

<표현>

② 수천여 명의 관람객들로 → 수천 명의 관람객들로

‘수천여 명’은 ‘수-’와 ‘-여’가 수량이 분명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중복되고 있으므로 ‘수천 명’으로 쓴다.

④ 8~11일까지 축제기간 → 축제기간 8~11일에

‘~’와 ‘까지’가 의미가 중복되므로 간결하게 ‘축제기간 8~11일에’로 쓴다.

⑤ 행사장 안내, 통역, 환경정리 등 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안내, 통역, 환경정리 등 곳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앞 문장과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어를 생략해도 되는 문장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은’이라는 주어를 밝혀 준다.

⑦ 특히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 특히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누가 평가했는지 주체가 없어 어색한 문장이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를 주어로 써야 자연스럽다.

⑧ 대구를 홍보하는 일은 물론 원활한 축제 진행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 대구를 홍보하는 일은 물론 원활하게 축제를 진행하는 데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대구를 홍보하는 일’과 ‘원활한 축제 진행’은 대등하게 접속해야 한다. ‘대구를 홍보하는 일은 물론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⑨ 중국어 통역 봉사를 위해 참여했다 → 중국어 통역 봉사를 하려고 참여했다

명사가 나열된 형태보다는 ‘~봉사를 하려고 참여했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⑩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익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르 수 있다’ 형태가 반복되어 부자연스럽다. ‘-르 수 있다’는 뒤에 오는 명

사(기회, 방법, 길, 계기)에 따라 생략해 간결하게 쓸 수 있다.

⑪ 나라 문화 → 나라의 문화

조사 '의'를 써야 자연스럽다.

⑫ 통역관 꿈 → 통역관의 꿈

조사 '의'를 써야 자연스럽다.

(4) '얼쑤~' 풍물놀이에 취한 파란 눈의 미술가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①“좋~다!”

19일 오후 충남 공주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 위치한 금강국제자연미술 센터. 팽과리, 북, 장구,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②베옷을 입은 ③10여 명의 노인들이 ④짚 병거지 모자를 쓰고 둥글게 둘러서서 ⑤악기를 두드리고 어깨춤을 추자 이를 지켜보던 외국인들의 눈이 커졌다. 서둘러 카메라를 꺼내 던 이들은 사진을 찍는 대신 못 말리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다.

이 외국인들은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010 ⑥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 전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작가들이다. 헝가리 인도 일본 페루 뉴질랜드 네덜란드 가나 폴란드 등 15개국에서 17명이 참여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축이 된 ‘논두렁 밭두렁’ 봉사단이 먼 곳에서 온 이들에게 공주 전통 풍물놀이를 보여주기 위해 공연을 펼쳤다.

세마치장단과 굿거리장단을 오가는 ⑦흥겨운 음악과 덩실거리는 노인들을 본 외국 작가들은 주춤거리며 다가갔다. 두 팔을 벌려 작가들을 얼싸안은 노인들은 기꺼이 북과 북채를 내주었다. 작가들은 어설프지만 발을 구르고 북을 두드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터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다. 한바탕 춤판을 벌인 뒤 작가들은 직접 북과 장구를 배우는 ⑧시간을 가졌다.

팽과리를 들고 있던 공주문화원 이걸재 부원장은 작가들에게 “한국 농악은 귀로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따라가는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⑨“Last dance!”라고 외치자 작가들은 아쉽다는 듯 ⑩“노!”를 외치며 주먹을 쥐고 흔들었다. 춤판은 연미산 자락에 어둠이 깔려고 나서야 끝이 났다. 작가들은 막걸리와 수육, 떡과 두부, 김치 등을 앞에 놓고 이야기판을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 약 한 달간 공주에 머물며 연미산에서 자연미술 설치작업을 한다. 슈렉 씨는 흐르는 계곡물 밑에 전등을 이용해 빛과 자연의 어우러

짐을 표현할 계획이고, 폴란드 작가 파벨 홀레베크 씨는 나무를 이용해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두 개의 상을 만들 예정이다.

2004년 시작한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려 올해 4회를 맞았다. 고승현 운영 위원장은 “외국 ⑪작가들이 작업할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공주 풍물놀이 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맞춤법>

① “좋~다!” → 좋다!

신문 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가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는 주로 리듬감을 표현하기 위한 부호로 사용한다.)

<낱말>

④ 짚 병거지 모자 → 짚 병거지

중복 표현이다. ‘짚 병거지 모자’는 ‘병거지’에 ‘모자’란 뜻이 들어 있으므로 ‘짚 병거지’로 간결하게 쓴다.

⑧ 시간을 가졌다 → 시간을 보냈다/배우기도 했다

‘가지다’는 ‘소유’의 의미가 아닐 때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⑨ Last dance! → 마지막 춤 ⑩ 노! →안 돼!

외국어 ‘Last dance!’와 ‘노!’는 하나는 로마자, 하나는 한글로 써 일관성이 없다. 기사는 한글로 표기하고 외국어보다는 우리말을 쓴다.

<표현>

② 베옷을 입은 10여 명의 노인들이 짚 병거지 모자를 쓰고 둥글게 둘러서서 악기를 두드리고 어깨춤을 추자 이를 지켜보던 외국인들의 눈이 커졌다.
→ 베옷을 입고 짚 병거지를 쓴 노인 10여 명이 둥글게 둘러서서 악기를 두드리며 어깨춤을 추자 이를 지켜보던 외국인들의 눈이 커졌다.

노인들의 행색을 묘사한 부분과 행동을 서술한 부분이 뒤섞여 있다. ‘행색을 나타내는 부분과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을 모아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10여 명의 노인들이 → 노인 10여 명

명사 다음에 숫자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개는 ‘세 개의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사과 3개를 먹는다’로 말한다.

⑤ 악기를 두드리고 어깨춤을 추자 → 악기를 두드리며 어깨춤을 추자

‘악기를 두드리고 어깨춤을 추자’는 악기를 두드리는 것과 어깨춤을 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연결어미 '-며'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 전시를 위해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작품을 전시하려고

명사 뒤에 '위해'가 오는 형태는 '~하려고' '~하기 위해' 등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⑦ 흥겨운 음악과 덩실거리는 노인들을 본 외국 작가들 → 흥겨운 음악을 듣고 덩실거리는 노인들을 본 외국 작가들

'흥겨운 음악을 듣고'와 '덩실거리는 노인들'이 대등하게 연결되도록 문장을 수정한다.

⑪ 작가들이 작업할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 작가들에게 작업할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가들이 이해하는 것'과 '작가들이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등한 것끼리 연결되도록 문장을 수정한다.

VI. 결론

신문은 언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신문 언어는 일상 생활의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신문은 어문 규정에 맞도록 기사를 써야 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써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신문 언어 활용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기본 지침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신입기자나 기사를 지망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되도록 실제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신문 언어의 오류 유형을 살피고 올바른 표기 및 표현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문 기사의 오류를 다룰 때는 띄어쓰기, 맞춤법의 오류를 와 낱말과 표현의 오류를 다루었다.

이러한 오류를 토대로 신문 기사를 쓸 때의 지침을 제안하였다.

신문 기사를 쓸 때는 어문 규정에 맞도록 써야 한다. 즉, 띄어쓰기,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써야 한다.

단어는 한자어나 외국어보다는 고유어나 쉬운 표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한자어는 되도록 고유어나 쉬운 표현을 쓰고 외래어는 되도록 순화어로 고쳐 쓴다.

기사의 문장은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을 쓰도록 한다. 간결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단문을 즐겨 쓰고, 꾸미는 말을 길게 늘어놓거나 반복하지 않으며, 같은 말이나 대등절을 반복하지 않는다.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을 갖추어 쓰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되도록 써야 한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번역투의 문장을 피하고 피동형의 문장보다는 능동형의 문장을 써야 한다.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군더더기말, 전문용어, 외국어, 준말, 신조어 따위를 피한다.

<참고문헌>

- 정희창(2007), 우리말 맞춤법 · 띄어쓰기, 랜덤하우스
- 김세중(2003), 신문 문장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09),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1997), 한국 신문의 문체,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7),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8),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9), 인종, 국적, 다문화가정 자녀, 지역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한국어문기자협회(2009), 『이런 말에 그런 뜻이』, 국립국어원, 한국어문기자협회
- 이병갑(2009), 『우리말 문장 바로 쓰기 노트』, 민음사
- 홍성호(2008), 『진짜 경쟁력은 국어실력이다』, 예담